

# 한인뉴스

8

2012 VOL.194

haninnewsinni@gmail.com





일시 : 2012년 8월 15일(수) 오전 9시

장소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th Fl)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제 67 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광복 67주년을 맞이하여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8.15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동포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 8.15 광복절기념골프대회와 체육대회는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은 개최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넘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 PRIME NUSANTARA TOUR SERVICE

E-mail : [michelle.lee@primef.co.id](mailto:michelle.lee@primef.co.id)

**SUKA**  
**KOREA**  
Super Unforgettable Kind Amazing

프라임 투어의 한국패키지 브랜드 명칭  
'좋아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SUKA 를  
멋지고 잊을 수 없고 진절하여 굉장한 한국이라고 풀이함.

##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거듭 납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상호를 변경 하고  
더욱 적극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장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전파합니다.

- ▶ 문화유산 패키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 중심 패키지
- ▶ 한류 패키지: 열정적인 공연물 중심 패키지
- ▶ 의료 패키지: 발달된 의료상품 중심 패키지
- ▶ 쇼핑 패키지: 면세점부터 시장까지 쇼핑 중심 패키지
- ▶ 기업 패키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사 중심 패키지



## 프라임 투어 서비스

- ▶ 인도네시아 여행 서비스
- ▶ 주요 지역 호텔 및 차량 예약
- ▶ 기업 및 단체 컨퍼런스 개최
-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 ▶ 교민을 위한 가족초청 프로그램  
(자카르타 친지방문과 유명여행지를 결합한 여행)
- ▶ Garuda항공 에어텔 예약  
~ 자카르타 출장고객  
~ 인도네시아 여행객.  
~ 인도네시아경유 호주여행 고객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홈페이지 한인사회와 더욱 가깝게 만나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하게 바뀌었습니다!

KOREA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

Homepage :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새롭게 변화하는 한인회와 함께 개편된 홈페이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출장과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생활정보> 게시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 <종교>, <여행>, <비자>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비슷한 종류의 궁금한 사항을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전화번호부’는 업종별 혹은 ‘업소명’의 일부 단어로 1,100여 개 업소의 전화번호, 주소, 위치 정보(Google map)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정보를 등록하실 경우에도 email을 통하여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소식**을 13개 지역의 ‘지역 한인회’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에 게시판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와 관리자간의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한인동포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한인뉴스’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매일 1회 발행되는 <한인뉴스>를 텍스트화하여 기사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사진 정보와 광고는 기존과 같이 PDF 다운로드 방식을 병행 적용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게시판의 성격과는 무관한 <통합검색 기능>, <최신 게시글 열람> 기능이 추가될 것이고 2012년 6월에는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오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사회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10월 20일(91일간)

□ 대 상 자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출 처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모두)은 대사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대사관(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관할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서류 (인도네시아 : 비자·KITAS, KITAP)의 사본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투표로 표현하세요!!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방법

- ① 국외부재자신고(작성예시 참조) 등 재외국민등록 여부와는 무관함.  
※ 신고신청기간: 2012. 7. 22. ~ .10. 20. 국선 신고신청자도 다시 해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관에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우편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M.H.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Korean Embassy / Election Official
- ②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2. 10.(매일 8 a.m. ~ 5 p.m.)  
※ 재외투표소를 한국문화원(첨부된 약도참조)에 설치할 예정.  
※ 투표소에 방문 시 신분증(사진이 부착되고 대한민국 정부나, 인도네시아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KITAS, KITAP 등.

## 재외국민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① 여권발급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자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 중앙선거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해야 함(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
- ②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1)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수사에 응하려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음). 중앙선거위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 있음.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0811-108-2357(재외선거관)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인니공명선거추진활동협의회

## 경찰사칭 금품 갈취피해 사례 유의

최근 자카르타에서는 심야에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들이 마약수사, 교통위반 단속 등을 핑계로 마치 근무 중임을 가장하여 통행차량 또는 통행인을 정지시켜 검문, 수색하며 소지품을 갈취하거나 현금인출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급적 심야 외출 또는 인적이 드문 장소 통행을 자제하고

- 아무런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검문 수색을 당할 경우에는 그 경찰관에게 신분증 및 근무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에 경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가서 동 경찰관의 신분과 동 장소에서 근무를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신분증 : Kartu Anggota Polri 근무명령서 : Surat Dinas)

담당 : 이희성 영사, Tel : 021-2992-2500, Fax : 021-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 수족구병 유의 안내

1.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수족구병 환자의 확산에 따른 경고를 내린바, 당지에 거주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생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족구병(手足口病, 영어: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이란? (출처 : 질병관리본부)

-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A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감염되어 발발하는 전염병입니다.
-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이하의 어린 아동이 흔히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서, 보통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며, 침이나 타액, 진액 또는 감염자의 배설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일반적인 잠복기는 3~7일임)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수족구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을 보내지 말고 발병기간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외출 전·후, 배변 후, 식사 전·후, 야기거저귀 교체 전·후
  -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는 더욱 철저히 손씻기
- 아이들의 장남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 지켜주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여 타인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 뱀가죽을 닮은 살락

무늬가 뱀가죽 같아 Snake Fruit 이라고도 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분포한다



껍질은 거칠어 보이지만 의외로 얇고 쉽게 벗겨진다. 외피를 벗겨내면 안에 베이지색의 속살이 나오는데, 알맹이는 마늘모양으로 생겼다. 과육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속껍질은 떫은 맛이 강하지만 여기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 좋다. 사각사각 씹는 그 맛에 귀까지 즐겁다. 한 개의 과일 안에는 대략 2~4개의 알맹이가 들어 있고 각각의 알맹이 속에는 초콜릿색의 맨질맨질한 씨가 들어 있다. 송이로 함께 달려있는 것이 더욱 싱싱하며 겉색상이 연한갈색이고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 효능 ☆☆☆

- 소화흡수 기능을 돕는다.
- 알맹이와 껍질 사이의 막은 설사와 변비에 좋다.
- 갈아서 팩을 할 경우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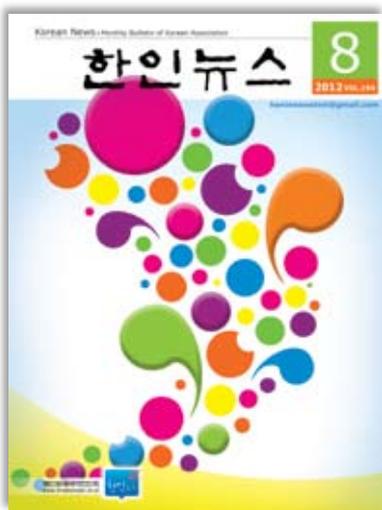
##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 표지설명 ▶▶▶

8월, 해방의 기쁨이 붓물처럼 터지는 달,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 부재자신고 등 안내문.....6
- 경찰사칭 금품 갈취 피해 사례 유의 외.....8
-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열대과일/살락.....9
- 차 한 잔 마시며<김문환>  
/종북세력.....12
- 인터뷰 마르주끼 다르스만.....14
- 한인뉴스 감사의 마음 전달.....17
- 8월 특집>  
인도네시아 두 개의 큰 축제.....18
- 연재기고<신성철>  
라마단 단식 체험기.....22
- 풍경과 사람<엄종한>/ 모래필 .....25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이달은 유달리 협약 체결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약속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 그것은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약속이 많은 사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자문에 자답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르바란 축제를 기다리며 온통 술렁입니다. 덩달아 한인사회 같은 재외국민들도 분에 넘치는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휴가 때는 특별하고 멋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6

-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대회 제7회 동남아한상대회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포럼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개최
-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 확대
- 한국광물공사 인니 유연탄 매입계약 체결
- 울산대-UPH 양해각서 체결
- 한-인니 식품 및 의약품 품질관리 협력 증진 도모
- 한-인니 CEPA 제1차 협상 개최
- 인니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과 기술력 지원
- 김영선 대사 한인니합작드라마 주연배우 접견
- 한류드라마 미니시리즈 30부작 첫 방영
- 한-인니 문화교류 축제
- 제17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1 마지막 방송
- 자바팔래스호텔 기공식
- 박지성 인니에서 QPR유니폼 입고 뛰다
- 성월 라마단에 스피커 붐??
- 인도네시아 케이팝 콘테스트 2012
- 코린도그룹 파푸아 원주민들을 위한 CSR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한국전통공예교실 개최
- 한 중 일 서예작가 초대전
- 한국서협인니지회 서울서예대전 입상
- 굿네이버스-한세실업 어린이날의 소중한 함께
- 6.25 및 북한도발 사진전시회 감상문공모전 시상
- 공모전 최우수작/ <신정수, JIKS 5>, 수상자명단
- JIKS 소식 / 찾아가는 수련활동 전개 외
- 호아킴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 / 박용희 학생기자



Jalan-jalan Jakarta <사공경>  
/자카르타역사감옥박물관.....48

속담으로 익히는 바하사인도네시아 <박정자>  
/Ketam menyuruh anaknya berjalan betul.....56

행복에세이 <서미숙>  
/추억 속의 서점.....58

건강하게 삼시다 <박진원>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아웃소싱.....64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하면<설태선>.....68

와칭! 코리아.....69

한인회 임원 찬조금.....70

생활정보.....7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송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북세력 從北勢力

김 문 환 / 논설위원

요즘 언론매체에 ‘중북세력’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상식적인 개념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최근 들어 자주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 서핑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기도 한다.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최근에 ‘중북세력’ ‘중북주의자’ 등의 직설적 단어를 사용해 북한 추종세력을 처음으로 비판하였다. 국내 중북세력에 대한 정면 비판은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드러난 중북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는 중북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혹자는 중북세력에 대해,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당인 노동당과 그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등의 통치이념과 외교방침을 비판없이 무조건 받아들여 추종하는 세력들을 일컫는다.”라고 정의한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중북세력을, “① 북한을 추종하며, ② 북한을 찬양하고, ③ 이롭게 하는 집단이다”라고 그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중북세력이라 하여 사정기관에 검거되어 형사처벌된 5대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다. 최근 중국공안당국에 억류되어 있다 풀려난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가 1991년 9월 북한 잠수정을 타고 밀북하여 김일성을 두 번이나 면담했던 ‘민혁당사건’, “수령님의 전사요, 조선의 전사”라는 지도이념으로 1992년 10월에 검거된 ‘중부지역당사건’이 있으며, 미국선수 안톤 오노에게 패배한 김동성 사건을 작사작곡하여 반미의식을 부추겼던 윤민석은 핵심당원이다. 그리고 1994년도의 ‘구국전위사건’, 2006년도의 ‘일심회사건’, 가장 최근인 2011년의 ‘왕재산사건’을 거치면서 중북세력은 그 연속성을 이어 왔다. 중북세력의 특징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이를 통일운동으로 포장하며 한국역사의 부끄럽고 어두운 면을 부각한다는 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친북정권 수립이라고 한다.

1966년도에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를 처음 수립하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73년에 이르러 서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



나, 자카르타 주재 북한공관원수는 압도적이었다.택시운전수가 한국공관으로 안내를 바라는 우리 교민들을 북한대사관 문 앞까지 잘못 안내하던 경우도 있었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출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보안교육을 받고 나오던 시절, 한국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근무하던 깔리만탄 산림개발 현장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은밀하게 동태를 감시하던 ‘냉전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 유전개발사업권을 따낸 한국기업의 최고경영자와 몇몇 교민들에게 접근하여 포섭을 시도하다 실패한 ‘재미교포 폴장 간첩사건’은 일부 교민의 머리 속에 아직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해 2000년대 초 자카르타 한복판에 북한식당이 버젓하게 들어서자 호기심에 의해, 또는 관습적으로 많은 교민들이 이곳을 드나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 자신의 행로를 남북한 국민은 하나라는 동족의식에서 그 명분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태를 방해하거나 제어하는 세력은 없었기에 확산되는 추세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정권교체라는 고국의 정치상황이 변화된 어느날, 그곳에서 종사하던 북한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종적을 감춰 버렸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교민들의 대북관념은 다시 원상복귀하게 된다.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을 가짜로 몰아가려 하자,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는 2007년 최종 보고서에서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테러사건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모 주간지에 연재되는 김현희 담당 여성수사관의 수기가 진실성을 더해 흥미를 안겨주는 것 같다.

최전방에서 땅굴 수색작업을 하다 나온 필자 앞에서 “땅굴은 남쪽에서 만든 조작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운동권 출신 친구와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그냥 가볍게 넘긴 세월은 오늘날과 같은 이념사회로 변모시켜 버렸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팽창하는 규모에 비례하여 요즘 각종 문화행사가 전개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통일글짓기대회 등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교육도 가끔 눈에 뜨인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편향적 이념으로 의심되는 논조가 발견된다는 한 심사위원의 토로를 듣고는, 이제는 우리 한인사회도 무풍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내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



“많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있으려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난민도 있지만 결국 탈북자는 망명자인 만큼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라고 백과사전은 인권에 대한 정의를 적시하고 있다. 두말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표결로 채택된 뒤 해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해왔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도 한국 등 43개 나라가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바 있다. 인권이사회는 이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와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노동교화형 처분을 규탄하



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 감시 아래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을 촉구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번의 경우처럼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유린 심각성에 많은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악화된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식량부족과 영양결핍, 인구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예로 북한의 쌀 가격이 2010년 한 해 동안 2배 정도 급등했으며, 8월에 발생한 홍수로 말미암아 식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은 ‘북한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 내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침해 중단 등을 북한 측에 촉구하였고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할 남북한 이산가족의 정례적 상봉이 지난해 11월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중단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납치/납북자 문제는 남북한이나 북한-일본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검색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탈북하려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주민도 생겨나고 있다. “북한이 복송된 탈북자들에게 강제수용소 수용, 고문 등의 혹독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주변국은 유엔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 보고관으로 임명된 후 줄곧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했으나 북한당국의 방북요청 거절로 정작 북한에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방북을 위한 서한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중,

이번 달, 한인뉴스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김일성 주석과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때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은 없다.**

임무를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다. 최근 뿌리요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이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양국 공조를 강화해 국제상황을 개선하고 내가 북한인권 관련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식접촉을 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남한의 이산가족이 고향에 못 가보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많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있으려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북한이 유엔에 '통영의 딸' 신숙자씨 사망을 통보했는데.**

신 씨 남편인 오길남 씨가 부인 사망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신 씨가 사망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핵심이다. 실종자를 찾는 것은 인권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임기가 1년 연장됐다. 향후 계획은.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됐다.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네바(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방문 비자를 신청했는데 방문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난민도 있지만 결국 탈북자는 망명자인 만큼 중국정부에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 방문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제인권전문가에게 실상을 공개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 탈북자 송환 통계가 있다.

기간별로 정확한 자료는 없고 많은 사람이 송환됐다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많이 정착해 사는 것은 탈북자 중 다수가 망명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을 통한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도 탈북자 송환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최근 남북 상황은 어떻게 보나.

남한은 북한 개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력도발과 로켓발사 등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상화가 힘들어 보인다. 남북 대화를 재개해 긴장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의 식량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거듭 요청했다. 그 외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사형제 등 북한의 형법제도 등을 언급한 그는 1985년 서독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모녀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건이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오길남 박사의 가족들을 즉각 자유롭게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1986년 북한을 탈출했으나 두 딸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첨예한 냉전체제의 경쟁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많은 국제관계에 적극 개입하고 성사시켜 동남아를 하나의 아세안으로 뭉치게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2013년은 한-인니 수교 40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는 현재 수교 40년 역사 중 최고임을 상호 확인하고 있다. 남북한문제에서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 한인뉴스 기고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 세계한인외보콘테스트 대상 수상 자축연

한인뉴스(발행인 승은호) 편집팀이 세계한인외보 콘테스트 대상 수상의 자축연을 열어 그동안 유용한 정보와 생활이야기를 회보에 담아 준 기고자와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행인 승은호 한인회장은 장기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더 좋은 한인회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편집팀에 당부했다.

조규철 편집인은 “오늘 이렇게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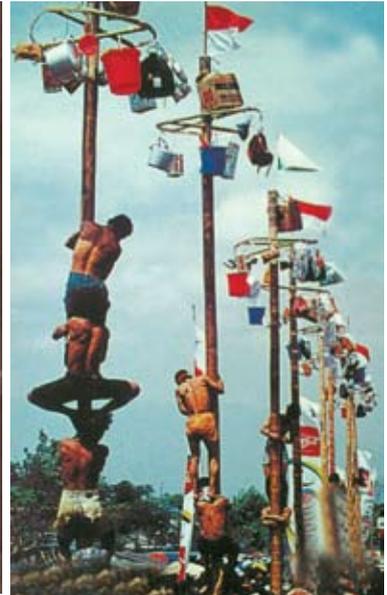


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게 된 것” 이라고 인사하며, 흑백 신문 형식으로 창간호를 발행했던 1996년부터 현재 올컬러판에 다양하게 기사를 실게 된 지령 193호(2012. 7월호)를 발행하기까지 과정과 에피소드를 회고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는 매월 다양한 뉴스와 정보,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자축연에는 대사관 박영식 공사와 김현기 문화원장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해주었으며 이종익 대한항공인니지사장, 최병현 PT. KIDECO JAYA AGUNG 상무, 김송정 UNICON INDO MESIN 대표, 김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대표, 한인뉴스 후원자 모임과 기고자들, 편집팀이 함께 했다.



## 인도네시아 두 개의 큰 축제

<글 박정자>

**자신을 정화하고 열육의 쟁을 나누는 정겨운 축제 - 르바란(Eid-ul-Fitri)**  
**300여 종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송고한 축제 - 독립기념일(Hari Kemerdekaan)**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큰 축제일을 동시에 맞는다. 바로 독립기념일과 르바란이다.

네덜란드 식민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제국에 점령되기까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인도네시아인들의 독립기념일, 그날이 오면 억압의 세월만큼이나 큰 해방의 기쁨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늘 현재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슬람력을 기준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과 마지막 달인 하지는 무슬림에게 매우 신성한 달로 여겨진다. 이슬람 종교에서 요구하는 5대 의무를 실천하는 달, 단식과 금욕, 성지순례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기도(Sholat), 신앙고백(Shahadat), 단식(Puasa), 희사(Zakat), 성지순례(Haji)가 이슬람의 5대 의무이다.

우리나라 역시 독립기념일과 추석이라는 대명절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의 축제일들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다.

### 300여 종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송고한 축제 - 독립기념일(Hari Kemerdekaan)

처음 인도네시아에 와서 독립기념일을 맞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독립기념일은 8월 15일인데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은 한국과 같은 해인 1945년이면서 날짜만 이들이 늦은 8월 17일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두고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연합군의 승전 소식이 배를 타고 건너오느라 늦어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선언이 늦어진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개시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위장구호를 앞세워 부족한 군수물자와 전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아국가들을 침략했다. 당시 350여 년의 네덜란드 식민통치에 치를 떨고 있던 수카르노와 하타 등 인도네시아의 온건파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무력을 이용하여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제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다. 덕분에 일본군은 야욕을 숨긴 채 인도네시아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고, 일본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는 결국 항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점차 패전으로 치달은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선심정책을 펴며 패전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45년 3월, 62명의 온건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을 모아 일본인 스스로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한다. 일제가 자신들의 파트너로 온건중도파를 선택한 이유는 젊은 세대보다 구시대 지도자들이 다루기 쉬우리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정세가 급물살처럼 변하자 온건파인 수카르노와 하타는 자국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남방군사령부의 테라우치 사령관을 찾아갔다. 독립선언이 늦은 이유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하는 요즘말처럼 교통편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인지 그들 일행은 돌아오기로 한 예정일보다 훨씬 늦은 14일 밤에야 자카르타로 귀환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모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정작 일본인들에 의해 독립을 보장받아온 그들은 어떻게 독립된 정부를 세워야할지 몰라 허둥대기만 했다. 그렇게 빨리 자신들에게 독립이 찾아 올 줄 예측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 민족지도자들은 자체적 독립을 주장하며 격렬한 어조의 독립선언문을 써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카르노와 하타는 일본을 자극할 경우 아직 국내에 남아 있는 일본군 잔류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로 간단한 성명조의 독립선언문을 고집했다. 결국 1945년 8월 17일 아침, 수카르노는 자카르타에 있는 자기 집 밖에서 일부 지인들과 몇몇 시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가고 그들의 독립기념일은 그렇게 소박한 분위기에서 결정되었다.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 선언문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권리 이양 등 제반 문제는 양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선언문 전문

아무리 조촐한 자리였다고 할지라도 길고 긴 식민역사(1602-1945)를 청산하는 그들로써는 얼마나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다시 돌아온 네덜란드 때문에 몇 년을 더 유혈전쟁에 휩싸여야했던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독립이라는 말과 상황은 참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의미일 터이다.

독립국가에서 수카르노와 하타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지냈다. 인도네시아 국제공항의 이름도 수카르노-하타공항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독립을 기념하는 조각과 동상 등 많은 상징물이 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모나스광장에 세워진 독립기념탑과 가루다로 표상된 군장일 것이다. 독립기념탑은 독립의 상징이며 인도네시아의 심장으로, 높이가 132미터로 상단부에는 시내를 한눈에 조망하는 전망대가 있고 하단부는 독립기념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탑의 받침대 가로/세로 길이가 45미터, 상단과 하단의 8개 모서리, 17개의 계단과 꼭대기에 설치된 금동햇불의 길이가 17미터. 이곳에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이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소장되어 있고 선언 당시 음성도 보관되어 있다. 또 하나, 신성한 전설 속의 새,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군장 ‘가루다Garuda’는 45개의 목깃털과 17개의 날개깃털, 그리고 8개의 꼬리깃털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독립기념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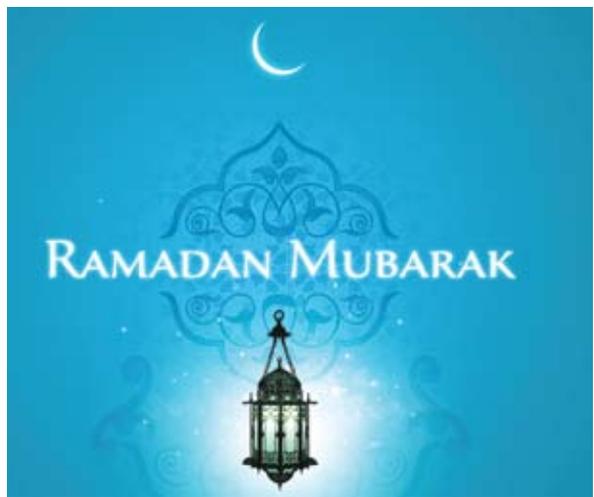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참으로 성대

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평소에 한없이 밀리던 도심은 한산하고 동네는 축제와 함성과 땀으로 뒤범벅된다. 동네 입구마다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현수막과 기념탑을 세우고 각종 경기와 노래경연으로 떠들썩하게 하루를 보낸다.

그날의 경기 중 꺾질 벗긴 나무를 기름 발라 높이 세워 놓고, 꼭대기에 게양된 국기 ‘메라뿌티 Merah Putih’를 먼저 낚아채는 팀이 이기는 ‘삐냥나무타기’는 가장 인기가 좋은 경기이다. 맨발로 나무를 타고 오르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가슴을 조이게 하는데 그것도 카다르시스의 일종일까? 이긴 팀은 나무에 걸린 생필품을 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의 만족감은 두 배가 된다.

300여 종족과 언어, 1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숭고한 의미를 지니며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항상 현실로 재현될 것처럼 보인다. 단일 민족이라고 민족의 순수성과 자긍심을 배우며 자란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축제가 너무 요란하다고 말하면서 내심 부럽다. 우리는 아직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

**자신을 정화하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정겨운 축제 - 르바란(Eid-ul-Fitri)**



르바란Lebaran은 또 하나 그들의 대축제일이다.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보름정도 앞당겨지는 르바란은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축제날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종교 축제이니 얼마나 큰 행사인지 이 또한 두말이 필요 없다. 작년에는 8월 30일-31일이 르바란이었고 이슬람력으로 1433년이 되는 올해의 르바란은 그보다 빨라져서 8월 19일-20일이 된다.

무슬림들은 르바란을 맞기 위한 선행의식으로 라마단Ramadan이라는 의무적인 금식기간을 한 달 동안 지켜야한다. 라마단은 ‘타는 듯 한 더위와 건조함’이라는 아랍어 ‘라미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새벽기도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낮 시간에는 금식과 금욕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절제한다. 이 한 달은 해 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고행으로 이어진다.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는 예외이다. 사우나장이나 술집 등 대부분 유흥업소는 문을 닫는다.

라마단의 금식에 대해서는 ‘라마단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낮 동안의 금식시간이 끝나면 과식을 하게 되고 그로인한 체중증가와 소화불량, 긴장성두통, 불면증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욕의 달’ 라마단엔 오히려 음식소비가 평소보다 30~40% 이상 증가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무슬림들만이 공유하는 라마단 기간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금식을 통과하는 인내와 금욕의 성실함을 통해 고통을 견디어 낸 의로운 자신을 새롭게 확인하는 희열일 것이다. 라마단의 날에 모든 이가 모여 가진 것을 나누면서 진정한 재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정점, 축제의 꽃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축제, 르바란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금식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에서 라마단은 매년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할 의무이며 절제하고 엄수해야 할 축제의 의식으로 지켜지고 있다.



라마단의 끝 무렵이면 외지에 나가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아 고향에 돌아간다. 그때, 고향을 찾아가는 대이동 길을 ‘무딕Mudik’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명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도로는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교통사정에 따라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부모, 형제에게 줄 선물꾸러미를 들고 즐겁게 떠나는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보인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귀향객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송 차량 때문에 고향 갈 기차를 놓치고 며칠씩 역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고향에는 꼭 다녀올 거라고 결행의 의지를 밝힌다. 며칠씩 역에서 지내게 되더라도 고향엘 다녀오려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애뜻하다. 축제일은 이틀이지만 실제 휴가 기간은 열흘 이상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라마단이 끝나고 르바란이 시작되는 오후 6시경부터는 골목이나 큰길 가릴 것 없이 폭죽을 터뜨리

며, 경적을 울리며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온다. ‘고행의 기간이 끝났으니 금식을 마치고 마음껏 즐기세!’ 하고 외치는 것 같다. 이슬람 최고의 축제는 그렇게 시작된다.

절정은 라마단이 끝난 날 새벽에 드리는 감사예배인데 축제로 들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남자들은 ‘삐찌Peci’라는 모자를 쓰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새 옷으로 단장하고 사원이나 야외운동장에 모여 기도를 드린다. 기도가 끝나면 꼬투팓 Ketupat이라고 하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꼬투팓은 팜이파리로 만든 네모 주머니에 쌀을 넣어 밥처럼 쪄낸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이다. 음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고 묘지에 참배를 가는 풍경은 우리나라 명절과 많이 닮았다.

“Selamat Idul Fitri, Mohon maaf lahir dan batin! - 르바란을 축하드리며,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르바란은 객지에서 돌아온 일가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용서의 의식을 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리웠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다. 독립기념일이 송고한 민족의 축제라면 르바란은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혈육의 정겨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 라마단 단식 체험기

### 첫 단추 잘못 끼워 단식 포기할 뻔

아침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잠에서 깬다. 목이 탔다. 그런데 이미 해가 떠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샤워를 해서 열을 식히고 거실에 앉아서 고민을 했다. 계속해? 그만해? 생애 첫 단식. 종교적인 활동은 빼고 이틀 가량 뿌아사(puasa, 이슬람식 단식)를 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간 무슬림은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을 포함한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 또한 금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의 침도 삼켜서는 안되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삼가는 등 금욕생활을 하며 평소에 소홀했던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임산부 등은 단식의무가 면제되나,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새벽에 식사를 하고 점심때까지 짧은 단식을 하며 종일 단식을 위한 훈련을 한다. 이슬람 성월(聖月)이자 단식월인 라마단이 올해는 7월 21일 시작돼 한 달간 이어진다.

라마단 시작 전날 저녁 약속으로 첫 뿌아사가 사달이 났다. 실제로 라마단은 전날 저녁기도인 따

라위(tarawih)가 열리면서 라마단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생체리듬 조절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야 했다. 아뿔사! 과로와 주량을 초과해 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깨지 못하고 아침 7시에서야 부스스 일어나 보니 걱정이 앞섰다. 전날 과음으로 당장 갈증이 심했고 사후르(sahur, 라마단에 동트기 전에 먹는 새벽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저녁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도 입에 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암담했다. 뿌아사 계획을 취소할까라는 갈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실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낮선 단식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아침부터 입안이 바작바작 타 들어가고 삼킬 침조차도 없어 몹시 고통스러웠다. 하는 수 없이 이슬람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생수로 입을 행구며 입안에 남은 약간의 수분을 빨아먹었다. 갈증을 참는 게 힘들고 기운이 없어 낮잠을 잤다. 깨어보니 오후 2시 위장이 마르고 뱃가죽이 등에 달아 붙은 느낌이었다. 평소 식탐이 없어서 굶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갈증과 배고픔이 겹쳐 고통스러웠다.

**무슬림 앞에서 마시거나 먹거나 흡연은 자제해야** 나는 토요일이어서 쉬면서 하지만 평소처럼 일하

면서 단식을 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육적 단식은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이슬람 5대 의무 중 하나로 무슬림들은 이 기간에 꾸란(쿠란)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며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슬림이 보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자카르타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에서도 음식점, 백도널드, 커피전문점 등은 전면유리를 커튼으로 가리고 내부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 멈춘 시간, 아침내 맛 본 달콤한 물

오후 3시. 계속해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3시간만 참자. 체력이 바닥났다. 샤워를 해 피부로 미량의 수분을 흡수하고 정신을 차렸다. 오후부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책을 읽고 일도 해보았으나 집중력이 떨어져 혼란스럽고 말조차 하기 싫어졌다. 내 시선은 책장이나 모니터보다 벽시계에 더 많이 머물렀다. 오후 5시가 되자 뿌아사 첫날 성공예감이 들었다.

전날 슈퍼마켓에서 사온 과일의 일종인 띠문수리(timun suri)에 시럽 대신 울리고당을 넣고 얼음을 띄워 화채 비슷하게 만들었다. 띠문수리는 어른 팔뚝만한데 생긴 건 참외와 비슷하고 씹으면 푹 익은 참외 같이 푸석푸석하고 아무런 맛과 향이 없다. 드디어 마그립 아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수를 천천히 마셨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물이었다. 잠시 후 준비된 띠문수리 화채를 손가락으로 떠먹었다. 시원하게 목으로 넘어가면서 한낮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만찬은 된장찌개와 데친 채소 및 쌈장을 준비해 먹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날까 염려한 까닭이다. 즐겨 마시는 맥주도 시원하게 준비했으나 다음날을 생각하니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첫날 갈증이 정말 지옥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생수로 하루종일 갈증을 달래고 띠문수리 또는 과일컵테일을 먹은 다음 단음료의 일종인 꼴락(kolak)과 튀긴 음식으로 속을 다스린 후 저녁기도를 하고 라마단 성찬(盛饌)을 한다. 요즘에는 약식으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이 함께 회식을 하는 부까 버르사마(Buka bersama 또는 Bukber)라는 새로운 풍속도 생겨났다. 성찬은 단식 후 첫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외에도 가족과 친구, 친척이 모여 친교를 두텁게 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되새킨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2~3끼를 몰아서 먹고, 단식에 대비한 영양보충과 다른 이를 초대해 먹는 만찬 준비로 식품의 질을 높이고 양도 늘려서 실제 식품구입비와 소비량이 평소의 배로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오른다.

### 갈증과 배고픔이 두려워 활동을 자제

라마단이면 무슬림이 활동을 자제해 뽀짝 같은 관광지는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뿌아사 시작



하기 전에는 단식 두 번째 날에 뽀짝 차밭에 다녀 오려고 했으나 단식 첫날 힘든 경험을 하고는 뽀짝 관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목마를까 배고플까 걱정돼서 아예 움직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라마단에 관공서는 평상시 업무시간이 오전 7시 30분~오후 4시에서 오전 8시~오후 3시로 1시간 반 단축근무 한다. 학교도 단축수업하고 대부분 기업체들도 근무시간이 조정된다.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우나, 마사지업소, 당구장 같은 유흥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가라오케는 부가뿌아사와 따라위가 끝난 후인 밤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영업을 허용된다. 라마단 동안 낮시간에 무슬림이 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지옥 자카르타도 여유가 생겨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된다.

### 제대로 시작한 단식, 머리는 맑아져

단식 이틀째. 새벽 아잔 소리에 잠이 깬다. 최근 이슬람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아잔 소리를 줄이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인지 이슬람사원에서 흘러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작아졌다. 빵, 채소 샐러드, 계란프라이, 과일 등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낮의 갈증을 생각해서 미리 충분히 생수와 과일주스를 마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첫날 단식으로 체력이 바닥나서인지 식사 후 졸음이 몰려와 3시간 가량 아침 잠을 잤다. 통상 무슬림들은 사후르를 먹고 나서 출근 전까지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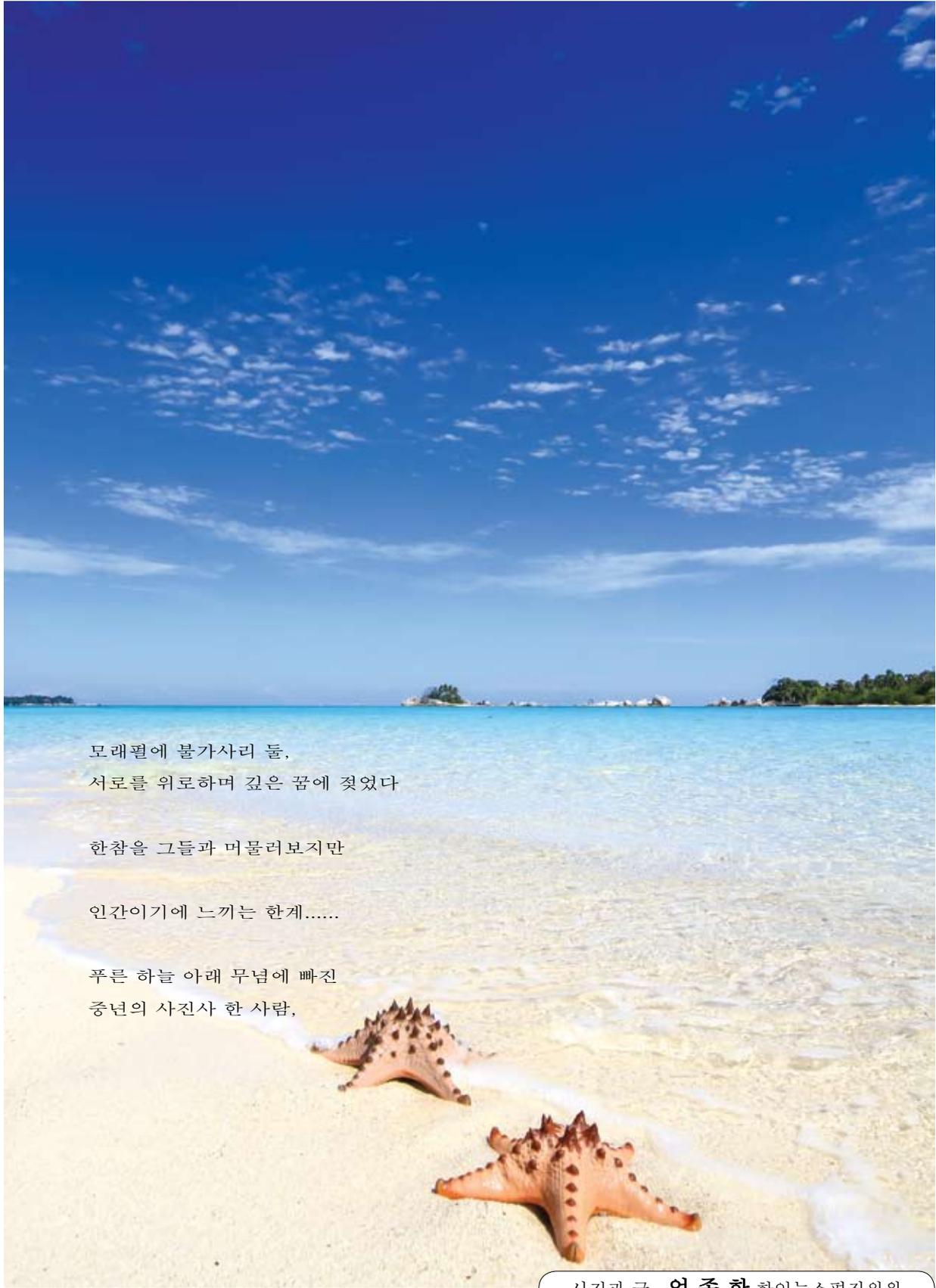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멈춘 느낌이 들 것 같아 책도 읽고 일을 했다. 첫날보다는 갈증을 참을 만했고 집중력도 살아났다. 거울을 보니 다소 수척해 보였으나 눈동자에 생기가 느껴졌다. 외출과 운동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힘들지 않게 둘째 날을 보낼 수 있었다.

애초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틀만 하려 했으나, 실제로 일하는 날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단식을 하루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 셋째 날도 굶는 것은 힘들지 않았지만 사후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체력도 바닥이 난 것 같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 실제 갈증보다 목마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커

단식을 하는 동안 식사시간을 쓰지 않아도 됐고 술을 자제해야 했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활동을 줄이다 보니 여유시간이 생겼다. 내 경우는 첫날 잠을 좀 잔 것을 제외하면 책을 읽거나 미뤄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채웠다. 반면 무슬림들은 기도와 코란읽기로 빈 시간을 채우면서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저녁에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인간관계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단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평소 생활에 매몰돼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Selamat menunaikan ibadah puasa!*  
단식의 의무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래펄에 불가사리 둘,  
서로를 위로하며 깊은 꿈에 젖었다

한참을 그들과 머물러보지만

인간이기에 느끼는 한계.....

푸른 하늘 아래 무덤에 빠진  
중년의 사진사 한 사람,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 몽골 2012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대회 제7회 동남아한상대회

김경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동남아한인거상 승은호 회장 등 80여 명 참석

2012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제7회 동남아한상연합회 대회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몽골(한인회장 박호성)의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 이번 한상대회와 아시아한인총연합회대회에는 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회장을 비롯해 필리핀 이원주 회장,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한인회 등 7개국 전·현직 한인회장 10명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한상인 재이니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을 비롯한 동포기업인 약 20명, 재외동포재단의 김경근 이사장,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 등 80여 명이 모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발전방향과 동포기업인들이 상호 협력해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경근이사장은 “한인회의 역할이 각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한인동포들과 한인회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한인동포 및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재단과 각국 한인회가 함께 노력하자” 라는 인사말로 상호협력과 공동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승은호 회장은 “몽골 방문이 처음인데, 울란바토르 시가지가 애초 짐작했던 것보다 다소 발전돼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시가지 도로상황은 앞으로 좀 더 개선돼야 할 것 같다” 며 한-몽골 외교관계 수립 이후 몽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회 소감을 밝히며, “몽골이 지하자원 부국임을 알고는 있으나,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킵 없이는 못 마시듯이, 몽골에 지하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투자국가든, 몽골이든 자체에서 자원개발비 및 해외운송비 등과 관련한 수지타산에 심각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의 15배 크기인 몽골에는 현재 재외국민 약 4천여 명 정도가 체류 중이며,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몽골 진출이 부쩍 활발해지면서 몽골 주재 재외국민 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동남아한상연합회 대회는 파키스탄(회장 오성훈)에서 개최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포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인도네시아경총(APINDO) 및 국제노동기구(ILO) 자카르타사무소(소장 Peter Van Rooij)와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포럼을 개최했다. 7월 4일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기따 위르자완 통상장관 등 인도네시아 경제계 주요 관계자들과 최철규 외교통상부 심의관 외 인니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인인한국대사관 측은 인니에 진출한 한국대기업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CSR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활동은 미약하여 CSR MOU 서명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선 대사는 “CSR은 기업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CSR활동을 경영목표 개념에 추가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소피아안 와난디 경총회장은 “민간의 CSR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역량 및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번 포럼이 인니업체와 한국업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CSR 포럼은 한국학계, 국제기구, NGO, 컨설팅기업의 CSR전문가, 다국적브랜드바이어, 인도네시아업체 및 인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CSR 기업전략과 우수사례들을 소개하고 국제기구와 다국적브랜드바이어들의 CSR관련 요망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효과적인 CSR 활동 및 전략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의 핵은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 송창근 수석부회장과 인도네시아경총(APINDO) 소피아안 와난디 회장의 양해각서 서명식이었다. 이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하고, CSR 활동에 있어서 인니업체와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KOCHAM-APINDO간 CSR MOU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소재 우리업체 및 인도네시아 업체가 초점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CSR 활동분야, [인권, 근로, CSR인식 제고, 투명성, 환경, 지역사회, 상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CSR활동은 인도네시아 내 약 1,500개의 우리 기업이 80만 명 정도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개최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 이하 한인회) 이사회가 7월 18일 BSD C.C.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2011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 및 종합예산 보고로 진행되었으며, 한인회 회칙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승은호 회장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그 어느 지역의 한인회보다 화합하고 단결이 잘 되는 한인회이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임무는 봉사는 것이며 보수도 없이 열심히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는 분들 덕분에 믿음과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연말에 있을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정정당당하고 분쟁 없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 사무국장은 2011년과 2012년의 주요 활동으로 대사관과 연계한 한인범죄 피해상담창구 개설과 연초에 확대개편된 한인회 홈페이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재인니한인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협력 확대, 신속한 업무처리 강화를 위한 상공회의소와 유기적 관계등을 보고했다. 또한 재난

구호와 불우이웃돕기사업 같은 봉사활동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기엽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말 구성된 8명의 회칙개정위원들이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회칙개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은 한인회가 봉사단체임을 명시하고 임원진 확대와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개정된 내용 중에는 ‘여성분과위원회’ 신설과 ‘회장후보 등록 및 선출’ 조목의 신설도 들어있다.

회의에는 박영식 총영사와 설태선 영사(재외투표관리관)가 동석하여 한인회와 대사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12월 대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서로 돕는 한인사회

서로 믿는 한인사회

발전하는 한인사회



이날 친목을 다지는 골프대회에서 정주성 (PT. DEASUNG HI-TECH) 이사가 위너를 차지했으며, 이세호 (PT. DUMI GLOBAL) 상공회 부회장이 메달리스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상공회 부회장과 노예범 (PT. SAM PUTRA INTI) 이사가 러너, 이지현 (PT. ZIMMOAH MARIN TRANS) 한인회 부회장이 룡기스트, 지동주 (INTEC MAS ENGINEERING) 이사가 니어리스트를 수상했다. 또한 KAL (지사장 이종억)에서 제공한 한국왕복권의 행운은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이사에게 돌아갔다.



##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협력 더 긴밀히 애나갑시다”

여섯 번째 양국 산림협력포럼...현지 산림투자·학술교류 확대방안 논의

산림청은 5일 오전 서울 흥릉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6회 한국-인도네시아 산림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정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산림협력사업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산림투자 활성화 대책을 토론한 이 자리에는 김용하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과 이만 산토소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의 공무원과 학계·임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시행 중인 70만

ha 조림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고

산림바이오매스 2만ha 시범사업과 산림 탄소배출권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인도네시아 함발랑 녹색협력단지 조성, 양국 산림전문가·대학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산림대학간 학술교류, 열대림 정보 공유 등 두 나라 간에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사업도 논의했다.



## 한국광물공사, 인도네시아 유연탄 매입 계약 체결

아주산업·포스코에너지도 공동 참여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인도네시아 남부 깔리만판 따나라웃에 위치한 낄탑 인사이트의 유연탄 생산사업 지분 30%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19일 계약을 마쳤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지분 인수는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연탄 수급에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호주에 집중됐던 유

연탄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생산광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다. 광물공사(15%)와 아주산업(7.5%), 포스코에너지(7.5%)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이 사업은 이미 STX가 40%, 제인실업이 10%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사실상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낄탑 인사이트는 해안과 인접해 육로 운송 22Km, 외항 해상운송 20Km 등 타 광산에 비해 운송원가가 낮고 노천채탄이 가능하며 탄층도 5도 내외의 환경사를 이뤄 개발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신중 광물공사 사장은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한국의 유연탄 공급기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지난해 진출한 탐사광구와 합쳐 2014년부터 유연탄 790만 톤을 확보하게 돼 국내 발전회사에 안정적으로 석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울산대학교 - UPH 양해각서 체결

울산대학교(총장 이철)와 UPH 사이에 학술교류양해각서(MOU)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양교의 양해각서 체결식은 7월 13일 텨뵁 까라와치 (땅그

랑)에 위치한 UPH 총장실에서 송창근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울산대학교 이철 총장과 Raymond Liu, Ph.D, President UPH가 서명한 이번 MOU는 상호 우호를 돈독히 하며, 인적교류 및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 역사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선에 공헌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대 이철 총장은 “이것이 첫걸음이다. 양 대학의 해외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고 UPH 총장은 “교육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자” 며 화답하였다.

울산대학교는 1969년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대학이며, Universitas Pelita Harapan은 1994년에 설립되어 기독교정신을 모태로 희망의 등불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찬대학교이다.



## 한국식약청 - 인니식약청

###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품질관리 협력 증진 도모

한국식약청과 인도네시아식약청이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식품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이희성 한국식약청장과 슬라멧 루키(Dra Lucky S. Slamet) 인도네시아식약청장이 참석해 직접 서명했으며,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평가·검사 분야 협력 ▲수입제품의 안전문제 발생 시 해당 제품정보를 상호 간 통보 ▲문제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조사 진행 및 필요 시 공동 현지 실사 실시 ▲심포지엄 개최, 공동훈련 및 공동심사 실시 등이다.

양국은 수출·입 식품, 의약품(원료의약품, 백신, 생물학의약품 포함), 생약제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인도네시아식약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약품 등의 교역 확대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한-인니 CEPA 제1차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는 2011년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

한-인니 양국은 2011년 2월 한-인니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후 2011년 7월~10월간 총 3차례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3월 양국 정상회담(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인니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이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 김영무 한국외교통상부 FTA정책심의관과 사할라 룬반 가울(Sahala Lumban Gaol) 인니공기업부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

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인니 CEPA 협정의 범위, 협상작업반 구성, 무역통계·관세율 관련 정보교환 및 향후 협상일정 등 한-인니 CEPA 협상 운영세칙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아시아 지역 내 유망 신흥국가이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한-인니 CEPA 체결은 한-아세안 FTA 심화를 통한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의 강화는 물론 자원협력·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2차 협상은 금년 중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EMI 양해각서 체결

인니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과 기술력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에너지관리공사(EMI)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가스·석유화학 산업분야의 가스안전관리

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스·석유화학 분야의 가스안전 자문 및 교육훈련 제공, 공동 안전진단 실시, 기술전문가 파견 등의 가스안전 기술력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대천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4천만 명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넘보는 자원부국으로 현재 중소형 가스전 개발과 천연

연가스 차량개조 및 충전시설 확충 등 Oil-to-Ga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금번 양해각서 국내 유관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김영선 대사, 한·인니 합작드라마 주연배우 접견

지난 19일 김영선 대사는 인도시아르채널에서 방영 중인 한·인니합작드라마 ‘사랑해, I Love You’의 여주인공 Revalina S. Temat을 접견하고 한·인니 간 대중문화 소통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대사와 Revalina S. Temat 양은 이번 합작드라마가 한·인니간 문화교류의 가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 인도네시아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한류드라마 미니시리즈 30부작 ‘Saranghae, I love you...’



7월 16일 첫 방영

제작 기간 내내 관심을 끌었던 한-인니 공동제작 미니시리즈 ‘사랑해, I love you...’가 7월 16일부터 방영을 시작하자마자 첫 주 시청률 7.5%를 기록했다. 수많은 민영방송 채널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시청률이 10%임을 감안할 때 7.5% 시청률은 매우 높은 수치이며, 다른 프로그램의 2배에 해당하는 광고판매율까지 기록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연은 인도네시아 반동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수상한 인도네시아 인기 여배우 Revalina S Temat과 최근 뮤지컬배우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인기가수 TIM(팀-황영민)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각자 다른 문화와 특별한 가정환경 속에서 가족 간의 오해로 빚어진 갈등과 피할 수 없는 이

별, 그러나 애절한 사랑을 통해 끝내 연인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영되는 이 드라마는 총 30부작으로 제작되어 인도네시아 TV 채널인 ‘인도시아르’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방영된다.

인니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드라마제작 및 투자사 ‘Asia Top Entertainment(대표: 김민영)’와 인니 드라마제작사 ‘Digital Networks Aestetik(대표: Rina Novita)’가 공동제작한 ‘사랑해, I love you...’는 양국의 명소를 중심으로 촬영하여 이미지홍보와 관광객유치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되며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 연예기획사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한-인니 문화교류 축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 체험부스 운영 및 양국 문화공연을 통해 교류와 화합 도모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하 한류재단, 이사장 김영훈)이 주최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 포스코건설(법인장 김동호)에서 후원한 ‘한국-인도네시아 문화 교류 축제’가 7월 7일 토요일 칠레곤시 크라카타우 정션에서 개최되었다.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축제의 1부는 한국전통 및 대중문화체험의 공간에서 한국전통놀이, 한국대중문화, 한식, 한국포토존 등의 한국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인니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2부는 양국 문화교류 공연으로 펼쳐져 인도네시아 서부 전통춤인 ‘Jaipong’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어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한국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의 파워풀한 난타공연,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전통무술 PENCAK SILAT의 시범과 Taekwondo Alasriyyah Nurul Iman(KOICA)의 태권도시범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바패 사물놀이의 흥겨운 장단으로 막을 내린 이번 축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양국 문화의 실질적인 교류 및 나눔의 자리였다.

한류재단 김경희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류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칠레곤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류재단은 이번 문화교류 축제 이외에도 칠레곤시 공공기관 7개소에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지원한다.

###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www.kofice.or.kr)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03년 6월 세계 각 국가와 한국 간의 다양한 문화산업교류를 통하여 각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류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ODA사업>,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한류연구>, <해외통신원 운영>, <아시아송페스티벌>,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등 다양한 대중문화 교류행사를 통해 대외 한국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 우리 문화 · 한국어 지구촌 보급 및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제17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인도네시아 지역 수상자  
주인니한국대사상 - 송명하(JIKS 9), 최지원(JIKS 11)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 - 박진수(JIKS 11)  
교육과학부장관상 - 아데 뜨리아나(UI 한국어학과)

**사** 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회장 김경석)는 7월 14일(토) 오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우리 문화 · 한국어 지구촌 보급 및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주제로 ‘제17회 세계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한국웅변인협회가 주최하고 (사)프로보노코리아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며 올해로 17회를 이어나간 본 대회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7천만 남북겨레와 지구촌에 흩어져 살고 있는 800만 해외동포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을 바로 쓰게 하여 이질화된 언어를 극복하고, 지구촌 인류에게 우리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전 세계에 한국어를 보급 ·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독일, 호주,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연사 18명과 국내 전국 시 · 도 대표연사 27



명, 총 45명의 연사가 대한민국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대법원장상, 국무총리상 등 해당부처 장관상을 놓고 그동안 연마한 웅변실력을 겨뤘다.

인도네시아는 본 대회의 예선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에서 ‘2012년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여 명의 예선 출마자 중 6명의 연사가 본선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송명하(JIKS9)군과 최지원(JIKS11)양이 대사상, 박진수(JIKS11)군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이연수 씨(한국, 충청북도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국대중가요를 K-Pop이라 부르듯이 대중을 설득하는 한국의 독특한 웅변문화를 K-Speech라 부르자고 주장하는 한국웅변인협회 김경석 회장은 “지속적으로 한류바람이 부는 지구촌을 찾아다니며 세계한국어웅변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세계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2년 전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1’ 마지막 방송

인도네시아, 한국 최초 합작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갤럭시 슈퍼스타’가 6개월간의 긴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갤럭시 슈퍼스타는 올해 1월부터 5개 도시(자카르타, 메단, 마카사르, 스마랑, 수라바야)를 돌며 지역오디션을 거쳐 아시아스타가 될 개성 있는 예비 가수들을 찾았다.

이후 자카르타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된 최종 11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으로 넘어가 K-pop 스타들을 배출한 레인보우 브릿지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적인 스타, 보컬, 댄스 트레이닝을 받았다.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진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 참가자들은 보다 더 실력 있고, 개성 넘치는 예비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11명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넘어와 트레이닝을 받는 실력자들이라는 사실이 현지에서 알려지면서, 한국 내 언론사들에게서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중에 유명한 k-pop 스타 미쓰에이, 비스트, B1A4와 K-pop 스타들도 만나기 힘들다는 인기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등을 만나 스타성에 대한 조언을 직접 얻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한국 속 발리라 불리우는 제주도에서 파이널 미션 TEST가 펼쳐졌으며, FIRLY, JEJE, ALIF, ARTHUR 4명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아시아 스타로 성장할 새로운 남자 팀이 구성될 것을 예고했다.

갤럭시 슈퍼스타 제작사 YS미디어엔터테인먼트는 이 4명의 최종 합격자들을 포함한 갤럭시 슈퍼스타 11명이 자카르타 프로모션투어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4명의 최종 우승자들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며 방송출연, 언론사 인터뷰, 각종 행사등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 한국의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는 김도훈 작곡가와 음반작업을 마무리 한 후, 10월경에 멋진 모습으로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컴백쇼를 가질 예정이다.

YS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박영수 대표는 “이들 11명의 갤럭시 슈퍼스타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멋진 아티스트로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4명의 우승자를 선두로 2차 걸그룹도 준비되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인도네시아 한국 프로듀서들과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11명 모

두 데뷔하여 한국 인도네시아를 음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6개월 동안 치열한 서바이벌을 거치고, 드디어 최종 11명의 실력을 갖춘 예비스타들, 인도네시아를 빛내고, 아시아를 빛낼 최고의 스타가 되기 위해 타국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1 주인공들의 모습을 7월 3일 자카르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많은 시청자들과 예비스타들로부터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2’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YS 미디어 측은 “오는 10월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1 우승자들이 데뷔한 후부터 오디션 신청을 시작으로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2가 시작된다. 2013년 인도네시아 열도를 뒤흔들 많은 예비스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기사제공 KTV>



# 세계를 겨냥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호텔 자바팔래스호텔 Java Palace Hotel 기공식



지상 10층, 지하 1층, 객실 수 150실  
과 international Pub, Restaurant,  
Lobby & Lounge, Ballroom,  
banquete, 수영장, 사우나, sports  
center, 골프연습장과 클럽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규모

다른 비즈니스호텔에서 볼 수  
없는 친환경정원을 건설할 터...

찌카랑의 Kota Jababeka 공단  
에 4성급 비즈니스호텔 ‘Java  
Palace Hotel’ 이 들어선다. 현  
재 이 지역에는 120만 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615개의 다국적기업  
(30여 국가)과 885개의 현지기업  
으로 이루어진 총 1,500개의 기업  
체가 입주하고 있어 경제비즈니스  
활동에 중요한 거점이 되고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  
난 6월 28일 착공한 이 호텔  
의 총 사업부지는 24,459M2이  
며 사업비 삼천만 불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설규모는 지상 10  
층, 지하 1층, 객실 수 150실과  
international Pub, Restaurant,  
Lobby&Lounge, Ballroom,  
banquete, 수영장, 사우나,  
sports center, 골프연습장과 클  
럽 등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호텔을 설립하는 박재한 사장(PT. Java Prima Global)은 “인도  
네시아 호텔부문에서 수많은 설계경험을 가진 PT. Karya Asri  
Rancangan bangun에서 3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친환경설  
계를 했습니다. 특히 호텔본관과 부속건물 사이에 정원을 시설하  
여 다른 비즈니스호텔에서 볼 수 없는 친환경정원을 건설할 계획  
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호텔,  
병원, 쇼핑몰, 아파트, 학교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PT. Waringin  
Group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인 기업가들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초대형 호텔  
이 세워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신선한 충격이며 사업성에 대  
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7월 12일 한인회와 각계 한인단체, 기업인 등 많은 하객과 함  
께 기공식을 거행했다.



## 박지성, 인니에서 QPR유니폼 입고 뛰다

특히 박지성에 대한 환호가 대단했다. 팬들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취재진들은 박지성이 버스에서 내리자,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5시간 전부터 호텔로 모여든 그들의 손에는 박지성의 이름이 새겨진 맨유유니폼 혹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유니폼이 들려 있었다. 박지성을 5시간 이상 기다린 12살 소년 알파는 “QPR에서 박지성이 가장 좋다. 맨유에서부터 그를 응원했다” 고 말했다.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도착해 공항에서부터 성대한 환호를 받으며 다시 한 번 박지성(31) 영입효과를 실감했다. 천 명이 넘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간신히 버스에 오른 QPR 선수단은 숙소에서 다시 한 번 팬들을 맞이했다. QPR선수단이 도착하기 5시간 전부터 호텔에서 진을 치고 있던 팬들은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줄을 서서 QPR 선수들을 환영했다.

박지성은 23일 인도네시아 껀오라 부 토모 스타디움에서 열린 ‘QPR 아시아투어 2012’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와의 경기 후반 25분에 교체 출전하여 2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2-1로 역전승을 거두었으며 아시아투어 3연승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성월(聖月)’ 라마단에 스피커 붐??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스크는 약 80만 곳에 이른다. 그런데 사원 안팎에 설치된 스피커가 너무 낡고 음질도 좋지 않아서 사회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라마단 기간에는 매일 해가 진 다음부터 자정까지 여러 곳의 모스크에서 코란을 독송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울려 퍼지며, 불평하는 이슬람 신자가 생겨날 지경이 되었다. 중부갈리만판에서는 올해 라마단에 코란 독송을 할 때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슬람사원에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요즘 이슬람 ‘성월(聖月)’ 라마단을 맞아 사원마다 스피커 교체 붐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낡은 스피커를 더 좋은 시설로 교체하면서 일부 사원에서는 단순히 큰 음향의 스피커가 아니라 음질 자체가 좋은 스피커를 설치해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스크에서 틀어대는 소리가 하루에 다섯 번, 5~10분정도라면 물론 참을 수 있지만, 아침기도부터 시작해 근처에 있는 대여섯 개 사원에서 30~45분 간격으로 틀어대 귀가 멀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스피커의 교체설치로 도시마다 소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2012 인도네시아 케이팝 콘테스트 Indonesia K-pop Contest

‘Indonesia K-pop Contest 2012’가 7월 10일 인도시아르방송국(TV Indosiar)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춤과 언어 등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류를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시키고 K-Pop 팬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문화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의 예선에는 309팀(Cover Dance 184팀, Cover Song 125팀)이 신청하여, Cover Dance부문 15개팀, Cover Song부문 5개팀이 본선을 겨루었다. 본선 무대에서는 소녀시대를 비롯하여, 2PM, 빅뱅, 비스트, 카라, 샤이니, 2NE1, 에프엑스 등의 커버댄스를 저마다 완벽하게 소화해내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K-Pop Cover Dance 부문과 K-Pop Cover Song 부문으로 구별하여 시상, Cover Dance 우승팀에게는 오는 9월 2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2012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여 참가하면서 1주일간의 한국관광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여된다.

Cover Dance부문에서 우승한 (X)EIRENE은 “한 달 정도 밖에 연습을 못해서 우승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다”며 “한국에서 개최하는 k-pop 경연대회에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연습하겠다”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Cover Dance부문에 (X)EIRENE, Cover Song 부문에 Nadya & Marwah가 이번 콘테스트의 우승을 차지했다.

권중술 관광공사지사장은 “지난해에도 K-POP 콘테스트의 호응이 무척 뜨거웠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 큰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자카르타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지사장 권중술)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인니 국영 가루다항공, 해외문화홍보원, KBS가 공동으로 후원한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TV O Channel을 통해 7월 21(토)과 22(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각 1시간씩 방영되었다.

**우승팀에게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2012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참가, 한국관광과 문화체험의 기회 부여**



# 코린도그룹 파푸아 원주민들을 위한 CSR

## 파푸아주 4개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300억 루피아 기부

코린도그룹은 팜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주 머라우게군 (Merauke) 응구띠면(Ngguti) 4개 마을 (나기야스/따게베/살라메베/바나메베) 원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300억 루피아를 기부하였다.

코린도그룹은 이 지역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4개 마을 현지 주민대표들과 머라우게 군수 및 군청관계자, 지역 유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경제자립 그리고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00억 루피아를 3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을발전기금 300억 루피아는 2012년에 1차로 53억 루피아 지급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2041년까지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파푸아 주 내에서 30년 간 지속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회사는 코린도그룹이 유일하며 현지 주민들 및 머라우게군 지방정부에서도 회사의 결정에 매우 고무되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코린도그룹은 이와는 별도로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파푸아 원주민들을 위한 CSR사업인 학교/병원/교회/도로 등의 마을 공공시설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파푸아 산촌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발전기금 전달식 행사는 7월 3일(금)에 군수, 마을주민, 군청관계자, 회사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응구띠면 따게베 마을에서 성황리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코린도그룹은 주민대표들과 마을발전기금 300억 루피아를 30년간 분할 기부하는 기부 약정서에 서명하고 1차분 53억 루피아를 마을주민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코린도그룹의 팜오일 사업부는 파푸아의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전달은 2009년부터 머라우게군 응구띠면 지역에서 34,000ha의 오일팜 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 PT. DONGIN PRAHBAWA 명의로 전달되었다.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한국전통공예교실 개최

### 손으로 한국을 느끼다

2012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 공예교실이 개최됐다.

자카르타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 주관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나시오날 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귀와 장수를 의미하는 모란 부채 그리기와 한국탈의 대표주자인 안동 하회의 양반탈과 부녀탈, 봉산탈춤으로 유명한 목중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 동안 진행된 한국 관련 행사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비슷비슷한 구성의 전시나 단편적인 공예교실 밖에 진행될 수 없었지만, 이번 공예 교실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여 공예에 대한 이론과 전문 기법들을 전수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매체와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공예 전시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열띤 관심으로 행사 한 달 전에 참가 신청이 마감 되었다. 특히 방학을 맞은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나시오날 대학교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여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밖의 살아있는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7월 13일, 14일 나시오날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7월 15일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었으며,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한국학과가 개설된 나시오날 대학교에서도 진행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공예체험 장계숙 강사는 “인도네시아들에게 우리의 전통공예문화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고 전하며 “많은 현지인들은 참여해줘서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한 달 전부터 참가신청 마감, 인도네시아인들 한국문화에 대한 열띤 관심...

이번 행사를 통해 책과 텔레비전의 화면에서 바라만 보았던 우리 공예품을 직접 손으로 붙이고 칠하고 느끼며 우리 전통문화가 현지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 안.중.일 서예작가 초대전

## 세 나라 서예가의 작품을 한 곳에

세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자카르타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중.일 서예작가 초대전’이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문화원다목적실에서 펼쳐졌다. 한국(인재 손인식), 일본(마사오메구로), 중국(이수현, 원연춘, 동초) 3개국 5명의 서예가가 참여해 총 24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주최측은 ‘필목동행’이라는 주제로 ‘예’를 통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기 문화원장은 “필목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원은 첫돌을 맞이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교류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한국서예인니지회 외원, 2012년 서울서예대전

## - 우수상 1명, 특선 1명, 18명 입선 -

2012년 제17회 서울서예대전에서 우수상(상금 100만원)과 특선 1명, 무려 18명 입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입상자는 우수상 부연 이선우, 특선에 취임 김효경, 입선에 송계 강주석, 이경 김선영, 자은 김영덕,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이담 김행일, 취현 박재환, 지운 박혜경, 혜산 송관원, 세정 심순희, 우빈 양승식, 금사 이영옥, 문정 이우규, 유선 이정화, 우현 임채실, 목정 장 임, 도념 제경중, 여송 홍성민(가나다 순)씨 등으로 한글서예부문, 5명, 한문서예부문 13명, 문인화부문 2명 등이다.

이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으며, 서울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8월 23일(목)부터 8월 29(수)까지 전시된다. 시상식은 25일(토) 오후 3시에 열린다.

## 어린이가 행복한 아루, 어린이가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한세실업, 어린이날의 소중함 함께 나눠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지부장 박동철)는 지난 14일 제5회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고르 라구난(GOR Ragunan)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아동뿐만 아니라 한인교민들도 함께 초청하고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자회견, 게임, 먹거리, 꾸미기 등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아동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함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자회견시간, “Want or Not” 에 대한 투표에서 아동들은 무상교육을 가장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별히 더 보호받고 싶은 부분에서는 마약과 성매매라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보호부, 시민단체 임원,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아동을 중심으로 참여인원 모두가 아동이 원하는 세상,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였다.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아동들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고 반영되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날인 7월 23일(월)에는 그랜드인도네시아 근처 광장, 스넨, 껌빠까 마스 3곳에서 어린이날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인도네시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날에 대



그랜드인도네시아 앞 광장에서 1인 캠페인 진행

해 알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박동철 지부장은 “인도네시아에는 어린이날이 아직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날은 7월 23일이다. 모두가 어린이날에 대해 알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 하였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인도네시아 시민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함께 여러 분야에서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기념하였다.

이번 행사에 티셔츠 3,000장을 후원해 준 한세실업(대표이사 이용백) 인도네시아법인장은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할 기회를 나눠준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에 감사하다” 고 했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동들의 의견을 전하는 기자회견-아동대표,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 직원, 교수, 정부관계자, 시민단체 임원 등이 참여

# ‘6.25 및 북한도발 사진전시회’ 감상문 공모전 시상식



7월 20일,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회장 김광현) 및 자유총연맹인니지부(지부장 박동희)에서 주최한 ‘6.25 및 북한도발 사진전시회 감상문 공모전 시상식’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에게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전시회 사진을 보고 느낀 소감을 글로 표현하게 한 이번 공모전은 해외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를 고지시켜 올바른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6.25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이다.

감상문 공모전은 총 40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에 신정수(JIKS5), 우수상에 박혜민(JIKS11), 박주영(JIKS10), 이윤영(JIKS6), 장려상에 김다윗(JIKS9) 최수빈(JIKS4) 총 6명이 수상하였다.

공모전 심사위원은 “학생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통해 전쟁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참상과 피해를 보고 당혹감과 슬픔을 잘 표현하였으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력을 기르며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심사평을 하였다.

방학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신정수(JIKS 5) 학생은 “최고상을 받아서도 좋지만, 오늘 한국을 가는 날이라 기분이 더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 6.25전쟁 및 북한도발행위 사진전을 관람하고 나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한국  
5학년 3반 신 정 수



### '6.25 및 북한도발 사진 전시회' 감상문 공모전 최우수작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62주년이 되는 날, 며칠 전부터 북도에 전시되었던 사진전을 지나치면서는 보았지만 더 자세히 관람하기 위해 우리 반은 같이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6.25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북한이 그 이후에도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에 대한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살고 계신 청와대에 간첩이 들어간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 내가 잊거나 알지 못했던 많은 일에 대한 끔찍한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하나 하나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많은 사진 중에서 6.25전쟁 때 총에 맞은 어머니 앞에서 울부짖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엄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배고파우는 아기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부모님과 살아가는 내 상황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난을 가기 위해 석탄을 실어나르는 기차에 짐처럼 구겨져 타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른다. 부모를 잃어버려 고아가 되어 떠돌며 마치 거지처럼 더럽고 먹지 못해 지금의 아프리카 어린이처럼 비쩍 마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옥이 저럴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집에 와서 엄마의 설명을 듣고 더 자세히 알게 된 아웅산 테러 사건과 KAL기 폭파 사건은 한 사람의 북한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에 많은 사람이 희생

을 당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웅산 묘지에 참배를 갔던 많은 장관들이 북한이 설치해 놓은 폭탄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비행기도 폭파하여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버렸다. 피 흘리는 사람들, 휴지조각처럼 구겨진 비행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그때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2년 전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젊은 군인들의 아까운 생명을 떠나보낸 천안함 사건이 기억났다. 그 군인들이 묻힌 곳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계신 대전국립현충원이라고 엄마가 말씀해주셨다.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위쪽에 묻힌 천안함 46명의 용사도 참배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연평도라는 섬에 폭격을 하였다.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대학을 간 큰 언니를 걱정하고 두 분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렇게 북한이 저질렀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사진을 다 관람하고 나서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가슴에 새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가져야겠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그 아들 김

정은이 대표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국민은 굶주리고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6.25가 지금까지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불안함이 해결되어야 우리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25가 일어났던 일요일 아침, 준비하지 못해 우리가 힘들었던 것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서 다시는 소중한 생명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62년 전에 일어났던 6.25와 여러 가지 북한의 만행들을 기억해야겠다.



‘6.25 및 북한도발 사진전시회’ 감상문 공모전 수상자 명단



No	수상명	시 상 자	수 상 자	학년	제 목
1	최우수상	주인니 대한민국대사	신 정 수	5	6.25전쟁 및 북한도발행위 사진전을 관람하고 나서
2	우수상	재인니 한인회장	박 혜 민	11	6.25전쟁 및 북한도발행위 사진 관람 감상문
3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장	박 주 영	10	6.25전쟁 및 북한도발행위 사진전시회 감상문
4		자유총연맹 인니지부장	이 윤 영	6	마르지 않는 눈물
5	장려상	재인니 대한체육회장	김 다 윷	9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6		JIKS 교장	최 수 빈	4	사진으로 느낀 6.25전쟁



## 자카르타역사감옥박물관

# Museum Sejarah Jakarta (Museum Fatahillah)

사 공 경 / 한\*인니문화연구원장

이 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자카르타의 문화유산을 수집, 연구하여 이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선사시대유물부터 최근 20세기까지 다양한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어 식민시대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 알맞은 장소이다. 총독이 애용한 가구와 세간, 회화, 오래된 지도, 총독의 초상화, 중국에서 온 도자기들이 불만하다.

건물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기 전인 1908년 지식인들이 시작한 국가부흥운동부터 1945년 독립선언 때까지의 크고 작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장소였다. 1925년부터 1942년까지 서부자바주 정부사무소로 운영되었고, 일본 점령 시(1942년-1945년)에는 Dai Nippon(위대한 일본) 병참보조보관소가 되어 일본군대가 주둔해 있었다. 1952년부터 도시군대의 주둔지로 운영되었다.

독립을 성취한 후에 이 건물은 0503 서부자카르타군사령부로 사용되다가 1968년부터 자카르타시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마침내 1974년 3월 30일, 시장 알리 사디킨 (Ali Sadikin)에 의해 자카르타역사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파따힐라박물관이라고도 한다.

파따힐라(Fatahillah)광장과 연결된 400년 역사를 지닌 자카르타역사박물관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기간에 바따비아(Batavia: 네덜란드 식민지 때 자카르타 명칭)시청으로서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다채롭고 오랜 역사를 지녔다. 빨간 석조 정문이 아름다운 이 건물은 이보다 반세기 전에 세워진 암스테르담시청(지금의 네덜란드 왕궁)과 비슷하며, 바따비아시청은 수많은 네덜란드 식민지시절의 우수한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바따비아 건설의 장본인 쿤(Jan Pieterszoon Coen) 총독이 1627년에 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때 감옥도 같이 만들었다. 그는 4대(1619년~1623년)와 6대(1627년~1629년)총독이었다. 박물관 출입구에서 중심홀로 곧게 걸어가면 왼쪽 벽면의 나무판에 네덜란드 말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649년에 건물 지하에 감옥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이 시청은 Johan van horn 총독이 1707년 1월 23일 보수에 착공했으며, Abraham van Riebeeck 총독이 1710년 7월 10일에 완성했다.”

그 후 재건축은 없었으나, 인도와 중국에서 가져온 두께가 50cm, 무게가 100Kg인 바닥의 돌 때문에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청건물 건축에 참여한 총독은 3사람이 있으며 모두 폭정을 했다. 특히 쿤(Coen) 총독은 비정상적으로 잔인했고, 술탄 아궁과 전쟁 후 1629년(9월 21일, 42세)에 콜레라로 병사했다. 현재 역사박물관 왼쪽에 와양박물관(Museum Wayang)으로 알려진 네덜란드묘지에 묻혔다. 식민지시절에 이곳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회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법이 선포되었고, 결혼식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죄수들의 감금, 처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취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청을 일컬어 ‘말하는 건물(Gedung Bicara)’이라고도 했다.

### 감옥

네덜란드정부의 법에 대항했던 바타비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식민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수입의 75%를 세금으로 요구했으며, 이를 거역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투옥했다. 때로는 자바의 왕들까지도 투옥되었다. 주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었지만 온갖 잡범, 성추행범, 도둑, 사기꾼, 심지어 미친사람까지 같이 수감했다. 수감자는 300명이 넘었다.

**남자감옥** 건물 뒤편에 있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다섯 개의 감방에는 투옥된 죄수들의 발과 팔에 매어 두었던 50kg과 25kg의 쇠뭉치가 있는데, 그 형언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자 깊은 심호흡 없이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한 사람에게 가로 세로 60cm, 50cm의 공간이 제공되었고, 한 감방에 40-50명씩 수감했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비위생적인 실내화장실을 사용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나 설사병으로 죽어갔다. 그 유명한 독립영웅

디뎀느고로(Diponegoro) 왕자도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로 망명가기 전에 여기에 투옥되었다.

나는 2003년 7월23일 한밤에 박물관 내부를 순회하는 이벤트에 참가했었다. 지하감옥에 실제로 앉아서 당시의 고문방법과 감옥생활에 대해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한 달 내에 20%의 수감자가, 3-4개월 내에 85%의 수감자가 죽어 나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우물감옥** 남자감옥과 함께 건물 뒤편에 있는,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우물감옥은 더 비참했다. 8미터 깊이의 우물에 죄수를 5, 6명 정도 집어넣고 쇠창살로 된 덮개를 덮는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우물의 수위를 조정한다. 분수대에서 시청 입구까지 보도블록이 약간 솟아있는 것은 우물감옥으로 통하는 배수관 때문이다. 서서히 목까지 물을 채우고 거머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2, 3일 내에 사람들이 죽는다. 우물 밑쪽에 위치한 자바 해로 연결된 터널 문을 열면 시체는 바로 바다로 떠내려간다. 이곳에서 나는 세균실험으로 희생된 일제 식민지시대의 민족시인 윤동주를 생각했다. 우물 밑의 수로는 순다플라빠항 부근의 전망대까지 이어지며 지하 통로의 길이가 8km나 된다. 우물에 물을 뺀 뒤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했다.

**여자 감옥** 이 건물 앞쪽 왼쪽 끝에 붙어 있는 여자죄수를 수감하는 감방은 높이가 1미터에 불과해 사람이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다. 당시 죄수들의 수감 기간은 대체로 1년이었으나, 그들이 석방되어 나올 때 제대로 걸어 나올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습기가 차고 불결해 이곳에서 나환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하고문장소 건물 앞에는 높이 2미터, 길이 31미터의 반지하 통로가 있는데, 고문을 할 때는 물을 채우고 거머리 같은 벌레를 넣어 죄수의 고문장소나 수감장소로 사용했다. 2차 대전 후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던 자피낭형무소이기도 하다. 이곳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 왔던 한인포로 61명이 수용되었다. 연합군 군사재판에 회부된 한국인들은 모두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전쟁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서 포로학대죄(포츠담 선언)로 ‘전범’이라는 억울한 죄명으로 감금당했다. 일본인 전범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된 한국청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 광장

공개처형장 나는 비틀 걸음으로 광장으로 걸어나왔다. 일제시대 우리의 감옥은 더 비참했다던데……. 시청 꼭대기의 종탑에서 세 번째 종이 울리면, 광장이나 정문 왼쪽에서 죄수를 공개 처형했는데 지금은 그 잔인한 역사의 광장에 가로등이 쓸쓸히 서 있었다. 아직까지도 타워에 있는 종은 1742년에 주조되었으며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공개처형은 1896년까지 계속되었다. 사형수들은 저녁 전에 사형장으로 옮겨지고 시청의 꼭대기 팔각타워에서 아침에 첫 번째 종이 울리면, 흰옷을 입은 사형수를 법정에 옮기고 그가 유죄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 종이 울리면 죄수를 사각(死角)지대인 사형대에 올리고, 판사가 건물 입구 위쪽에 앉아 사형을 선고한다. 세 번째 종이 울리면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집행은 유난히도 노예들이 많이 당했다. 가장 잔혹한 형벌 중의 하나가 찢려 죽이는 고문이다. 이 광장에서 온갖 고문이 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정치가 아니었나! 몸에다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찢려 감염시켜서 서서히 죽이기, 목마에 죄인을 태우고 무릎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거나 도르레에 돌을 달아 발에 떨어뜨리는 일, 온몸이 부스러져라 때리는 고문, 희생자들은 몇 날 며칠을 심한 고문과 고통으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살상욕(殺傷辱)을 수반한 심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땅에 묶어 거대한 바퀴를 몸 위로 굴려 죽였다. 이러한 고문과 형벌들은 평온한 파타힐라 광장(시청

광장) 또는 성 앞의 교수대의 사각(死角)지대와 퉁콜(Tongkol)거리에서 거행되었다. 민병 한 소대는 시청을 밤에 지켰고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오면 채찍질을 했다.

때로 시청광장은 활기찬 행사와 공공시장과 결혼축제가 벌어졌다. 중앙에는 멋진 팔각의 분수대가 있다. 그 옛날 시민들은 이곳에서 담소를 하거나 말에게 물을 먹였다. 분수대는 1743년에 세워졌고, 1997년에 예전의 분수가 복원되었다.

시청광장을 파타힐라광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527년 이슬람왕국의 왕자 파타힐라가 포르투갈을 물리친데서 유래된다. 그때부터 자카르타는 순다플라빠(Sunda Kelapa)에서 자야카르따(승리의 도시: Jayakarta)로 바뀐다. 또한 광장 한쪽 바닥에 있는 2.5m<sup>2</sup>의 돌판은 암스텔담궁전에서 가져왔다. 돌판에 “Moving the World” 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는 자카르타는 전 세계의 도시와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 뒤뜰

헤르메스 지금은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로 닭이나 오리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고, 즐거움을 주는 휴식장소지만, 식민시절에 죄수들은 뒤뜰 입구 오른쪽에 서서 초조하게 법정의 판정을 기다렸던 곳이다. 지금은 그곳에 ‘죽음의 신 헤르메스(Hermes) 조각’이 세워져있다.



중국인 대량 학살 네덜란드 사람들은 중국인을 데려와 낮은 임금을 주고 세금징수를 포함해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시켰고, 그렇게 정착하게 된 중국인들은 1619년 이래 바타비아 경제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후 국제 무역 주도권 쟁탈이 원인이 되어 중국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 폭동으로 1740년 10월 15,000명의 중국인(당시 전체 인구의 17%) 중 5,000명은 이곳에서 대량 학살당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까지 죽었다. 그때 총독 Adriaan Valckenier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 무자비한 학살을 오히려 환영했다.

에르베르펠트(Pieter Erberveld) 묘비 뒤뜰에 있는 비장한 묘비에서 나는 참으로 멋지고 감동적인 삶을 살다 간 남자 에르베르펠트를 만났다. 그는 독일인이며 신발업을 하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의 어머니는 태국 여자였고, 그 당시 아시아계 여자들은 대부분 현지처의 신분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는 아시아계 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네시아를 사랑한 그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비밀자금을 주었다. 결국 그는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1722년 4월 14일에 사지가 찢기는 죽음을 당한다.

16세기 때 대포-Si Jagur 파파힐라 광장의 북쪽, 카페 바타비아 옆에는 Si Jagur이라 불리는 옛날 포르투갈의 청동대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손상될까봐 박물관 뒤뜰로 옮겼다(2003년). 네덜란드인들이 1641년 말라카를 점령한 뒤 포르투갈 대포를 바타비아 성으로 가져온 후, 1809년 총독 Daendels가 성을 해체할 때까지 요새에 세워져 있었다. 자바인들은 이 대포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 다산의 상징으로 여긴다. 근래까지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목요일마다 이 청동대포에 오기도 했다. 그들은 꽃 제물을 바친 후 대포 위에 앉는다. 이 대포의 뒤쪽에 박힌 주먹, 엄지손가락이 중지와 검지 사이에 끼여져 있는데 이는 동거, 동침을 의미한다. 이 대포를 둘러싸고 여러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자구르라는 남자가 죽어 대포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 니 아묵 또한 죽어 대포가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 두 대포가 나란히 묻힌다



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니 아묵은 반튼(Banten) 도시 광장으로 옮겨졌다. 신부 호이켄의 책 ‘자카르타의 역사적 견해(Historical Sights of Jakarta)’에 쓰인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두 대포가 솔로의 법정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남성대포는 이를 어기고 바타비아로 갔고 여성대포는 순종하여 지금까지 솔로에 있다는 내용이다.

## 내부

1층. 박물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18세기 말에 제작된 사자상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사자가 안고 있는 방패는 바타비아 동인도 회사(VOC)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쌀과 향료 그리고 칼이 새겨져 있으며, 모나스탑의 긴 기둥(137m) 모양은 이 칼의 모양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아득한 선사시대의 돌연장, 토기, 금속연장, 힌두와 불교시대의 기념비가 새겨진 석상, 이슬람시대의 무기, 그림, 힌두신 비스누상과 바타비아시대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지도도 있다. 빠랑이라는 동물 죽이는 칼과 빼당이라는 사람 죽이는 칼도 전시되어 있다. 정교한 문양의 이슬람 설교단도 있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구 네덜란드 교회(1640년, 현 와양박물관)의 미니어처를 보면서 기독교가 식민지 지배문화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 예술품의 조각 하나 하나에 노예나 죄수들의 피와 한이 서려 있음이 느껴져 마음 아팠다.

최초의 힌두 왕국 따루마나가라(Tarumanegara) 유적 벽면과 기념비에 새겨진 화려한 산스크리트(Sanskrit) 문자를 보면 고도의 세련된 인도 문화가 이미 오래 전에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고르 근처의 짜따룸(Citarum) 강 유역에 있었던 따루마느가라 힌두왕국의 비문은 5세기 초 해상무역으로 부와 명성을 얻은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며, 이를 상징하는 듯 벽면에는 힘차게 항해하는 배가 장식되어 있다.

**Prasasti Kebon Kopi** 코끼리발자국이 새겨진 신성한 비문에는 두개의 코끼리발자국이 있는데 이 발자국은 위대한 따루마느가라왕국의 왕이 탔던 코끼리발자국이다. 신의 전쟁에서 신 인드라(Indra)가 탔던 코끼리 아이르바타(Airvata)보다 더 빛난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Prasasti Ciaruteun** 힌두왕의 힘을 상징하는 짜아루떼운 비문에는 두개의 발자국과 두개의 작은 꽃들과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따루마느가라 힌두왕국의 왕인 세계의 왕 뿌르나와르만(Purnawarman)의 것으로 힌두신 비스누의 발자문과 닮았다고 적혀있다. 이 유적들의 원형은 보고르에 있다. 이 박물관에서 5세기 때의 비문을 보며 나는 정지된 시간을 만난다.

**순다끌라빠 비문(Sunda Kelapa Inscription)** 1522년 힌두왕국과 포르투갈 사이의 협정을 새긴 Padrao Stone. 원형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힌두왕국 빠자자란(Pajajaran)의 지도자는 포르투갈이 이슬람 왕국의 침략을 막아주고 대신에 순다 끌라빠 항구에 요새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최초의 대포** 1527년 6월 22일 반뜰과 짜르본의 이슬람왕국이 순다끌라빠의 포르투갈을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대포의 섬세한 조각도 인상적이었다. 유럽에서 가져온 인도네시아인이 사용한 첫 번째 대포다.

**바타비아를 세운 끈 총독** 잘 보존되어 있는 그의 초상화는 1623년에 Jacob Wabbe가 그렸으며 원본이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20세기 바타비아에서 만들어진 13.3센티미터의 은순가락(sendok Perak)도 전시되어 있다. 끈의 동상은 지금 재무부 건물에 세워져 있다. 한 홀의 벽면을 짝 채우는 1628년과 1629년 두 차례에 있었던 끈과 술탄 아궁과의 치열한 바타비아 전쟁벽화를 가슴에

담고 티크나무로 된 중국풍의 붉은 색을 한 계단을 올라가면 2층 발코니가 보인다.

2층. 종이 울리면 인도네시아인들은 가락이 없는 쓸쓸한 발걸음으로 광장에 모였고 그때 총독이 2층 창문을 열고 연설을 하거나 집행선고문을 읽던 발코니. 또 공개처형이 있는 날에 판사는 완벽하게 의복을 차려입고 시청광장에 모인 사형수들과 시민을 보며 이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들과 특수경호원들은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문과 두꺼운 창살과 튼튼한 칸막이로 된 창문으로 중앙의 방과 분리되어 있었던 2층 발코니. 그 현장에 서서 밖을 내다본다. 지금은 이 발코니에서 바타비아 성이 위치해 있었던 곳을 향해 멋진 전망을 즐길 수가 있다. 자바 해까지 연결된 운하였던 오른쪽 차도에는 불행했던 역사에 무심한 듯 차들이 질주하고 있다. 파타힐라 광장 왼쪽에는 옛날 교회 건물(현 와양박물관)이 보이고, 길 건너 오른쪽에는 도자기예술 박물관도 보인다.

**리셉션 룸**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솔로몬이 정의의 재판관을 한 그림이 티크나무에 그려져 있다. 애절한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담겨있는 이 그림은 1660년 Neis가 그렸으며 두 번 복구를 했다.

**컨퍼런스 룸** 총독 P.A. Van der Parra(1761년-1775년 재임)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는 의사이기도 했다. 커다란 책장은 1748년에 제작된 것으로 재판소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책장 위 왼쪽에는 정의, 오른쪽에는 진리의 상징을 상징하는 상이 있으며, 책장에 사용한 유리는 수제품이다. 요즘 보는 매끈한 유리와 달리 다소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크리스탈이 더욱 정감을 느끼게 한다.

고독하게 벽에 걸려 있는 6킬로그램의 무겁고 긴 칼은 정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건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피의 칼이라고 부른다. 폭정을 했던 사람 중에는 나중에 권력무상을 느끼고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성경의 전도서 12장 8절이 떠오른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존경받았던 영국인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의 흉상은 단아했다. 그는 위대한 개혁자였



뿐만, 안너르로 가는 길을 만든 총독 Herman W. Daendels는 1808-1811에 재임했던 총독이다. 작은 회의실에 그의 초상화가 있다. 그는 평소에 바타비아의 나폴레옹이 되고 싶어해서 나폴레옹복장을 즐겼다. 네덜란드 법률가이며 군인으로 1807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의 왕이었고 나폴레옹의 형제인 Louis가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바타비아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시 성벽 안에 많은 건물을 짓게 명령하고 정부의 새로운 소재지로 Welterveden(보로부두르 호텔 앞 이

고, 재임 중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된 보로부두르 사원을 복원했으며, 보고르식물원과 왕궁을 만들었다.

18세기-20세기초의 가구인 유럽 스타일의 마호가니 화장대, 장롱,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여성 지도자 요한나(Mrs. Yohana)와 바타비아 시골을 통치했던 드윗(Mr. Heir Dwiht)의 초상화도 있다. 이들의 차림에서 그 당시 귀족들의 복장을 엿볼 수 있다. 1710년에 만들어진 자바스타일의 양증맞은 어린이침대, 모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장롱 등이 있다. 부자들만이 이렇게 값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박물관의 가구는 주로 노예가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중국, 유럽 스타일의 복합적인 것이 많다. 네덜란드인들은 큰 방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고통받고 있는 죄수들의 울음이나 비명소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18세기 때 사용한 미팅 룸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1693년에 만들어진 크리스탈램프는 우아했으며, 19세기에 유럽에서 가져온 유리로 만든 큰 거울도 있다. 티크나무에 금으로 페인팅 된 가리개에는 네덜란드 여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 싫은 남녀 인체에 맞게 만든 의자, 뚱뚱한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만든 의자에는 바퀴까지 달려 있다. 1721년 나무를 가로로 잘라 만든,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지는, 지름이 168cm, 210cm인 두 개의 테이블도 전시되어 있다. 총독 부부가 사용했던 아주 큰 침대는 가로로 자는 침대라 했다.

리안자야 독립기념 동상이 있는 곳)를 설립했다. 성벽은 나중에 허물어졌다. 그는 능력은 많았지만 거칠고 적이 많았다. 야망을 가지고 VOC의 돈을 남용하며, 자바를 관통하는 도로(Anyer에서 Panarukan까지 1000km)를 건설했다.

1825년부터 1830년까지 디뽀느고로 왕자가 일으킨 자바전쟁은 족자의 인구를 반으로 줄게 했고, 그의 투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전쟁은 20세기의 반식민지 운동을 예견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라덴 살레(Raden Saleh)가 그린 디뽀느고로 왕자가 붙잡혀 오는 그림 'Diponegoro 왕자의 체포'의 원본은 도자기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디뽀느고로 왕자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으며 아직도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그들의 행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Jl. Taman Fatahillah No.1 Jakarta Kota  
Tel. (6221) 6929101, 6901483  
Buka: Selasa-Kamis, Minggu(08:30-14:30),  
Jumat(08:30-11:30), Sabtu (08:30-13:30)  
Tutup: Senin, Libur Nasional  
Tiket masuk: Rp 2.000

## ● 감동 · 기쁨 · 행복 주는 찾아가는 수련활동 전개

올해 ‘찾아가는 JIKS 홍보단’ 이 신설되어 4월부터 자카르타 내의 한인 유치원을 방문하여 감동, 기쁨, 행복을 주는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성모유치원, 꿈나무유치원, 하나유치원, 사랑유치원, 리틀램유치원을 방문하여 이야기 ‘교육마술’ 과 요술판자쌓기인 ‘카프라’ 를 실시하였다.

교육마술은 이야기를 통한 호기심을 교육으로 연계시켜 창의력과 발표력, 그리고 자신감을 높여주고, 카프라는 요술판자쌓기를 통하여 서로간의 일체감 및 사회성, 협동심 등을 기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치원 관계자 및 교사, 학부모들은 JIKS의 ‘찾아가는 수련활동’ 은 자카르타 한인 유치원 원생들에게 매우 즐겁고 신나는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모두가 즐

거운 하루를 보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2년 9월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명랑 운동회’ 를 각 유치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찾아가는 수련활동 신청서’ 를 JIKS에 팩스(021-844-4927)로 보내고 나서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 ● JIKS-한양대부속고등학교 MOU체결

7월 10일, JIKS(교장 선중복)와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는(교장 박용만) Green School Action in South East Asia network 추진을 통해 ESD 실천 및 녹색학교 수립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직스와 한양대부속고는 Green School Action in South East Asia network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와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양측이 관련된 국가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학생 및 교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담당교사를 임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Green School은 2012학년도 JIKS의 특색 사업 중 하나이다. 교내에 청결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녹색 생활 문화가 정착되고, JIKS가 인도네시아의 현지학교와 국제학교의 Green School을 선도하는 거점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자신을 믿는 것 호아킴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

박 용 희 / 한인뉴스 학생기자



**바**보 빅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등장인물인 빅터 로저스는 실존 인물인 빅터 세레프리아코프를 모델로 했다. 빅터 세레프리아코프가 열다섯 살 때, 담임선생님은 그에게 공부에는 소질이 없으니 장사를 배우라고 했다. 32살까지 그는 별의별 직업을 가졌고, 불행했다. 32살 때 우연하게 한 아이큐테스트에서 자신이 IQ 161의 천재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많은 특허를 낸 성공적인 기업가가 됐고, 멘사협회 의장을 역임했다.

‘바보 빅터’의 빅터 로저스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었고 행동은 미숙했다. 중학생이 됐을 때 학교에서 IQ검사를 했다. 빅터의 IQ는 놀랍게도 173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빅터가 그런 지능을 가진 학생일리가 없다고 백 단위 숫자 1을 뺀 73을 기록부에 적었다. 빅터는 이 사실을 17년 후에 알기 전까지 자신의 IQ가 73인 줄 알고 생활한다. ‘바보 빅터’에서도 빅터 로저스가 자신의 IQ가 173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끼리의 경쟁은 치열하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사회가 정한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은 우리러보지만 덜 성공한 사람은 무시하고 얕본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욕에 아무 반항하지 않고 순응한다. 빅터도 자신의 진짜 IQ를 알기 전까지 우리가 실패자라고 부르는 부류였다. 그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아무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와 사람들이 주는 무시가 싫지만 받아들인다. 빅터는 자신이 딱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각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능성이 잠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 자신을 알

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 이런 긍정적인 힘은 걸음으로 나타나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데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내가 나를 믿는데 무엇이 걱정이며 불안할까? 두 질문의 답은 없다고 믿는다. 자신을 믿는 순간 두려움은 해소되고, 걱정은 없어지며 불안은 가라앉는다.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것은 가장 큰 지원군이며 응원자이다. 내 자신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지지하고 믿어 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가장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에는 현재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느낀 열등감으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그들에 잣대에 맞추고 평가한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정한, 독립적인 내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변한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비극이 온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슨 일이 있든 믿어야 한다. 지금은 대학 입시기간이다. 가까운 친구들 혹은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대학입시에 관하여 써놓은 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못 믿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학들이 발표한 경쟁률을 따지고, 자신의 부족한 자격조건을 불평하고, 높지 않은 점수를 걱정한다. 비단 입시생뿐만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위치한 곳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아킴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를 추천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을 보고 난 후로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다.

#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의 끝처럼 상큼한 행위가 또 있을까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 한층 젊어진 느낌 그런 것... 웃음에 대한 인니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senyum(미소)과 tertawa(소리내어 웃는 웃음)입니다. senyum lebar 하면 미소보다 크게 방긋 웃는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배꼽을 잡고 웃는 웃음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은 tertawa terpingkal 입니다. 밝게 인사하면서 웃는 웃음은 keceriaan, 사전을 찾아보니 인니어에도 웃음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겠쥬. 웃음이 많은 나라의 국민답게,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해집시다.

방송 정자 / 한인뉴스 편집장

## 1. Ketam menyuruh anaknya berjalan betul. 어미 게가 새끼 게에게 똑바로 걸어라 한다.

인도네시아 게도 한국 게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옛날에 허 짧은 훈장이 있었답니다. ‘바람 풍(風)’ 자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해도 ‘바담 풍’으로 밖에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바담 풍!’ 할 밖어요. 몇 번을 거듭하던 훈장은 화를 냈습니다. “나는 바담 풍해도 너희는 바담 풍해라”???? 어찌라는 말씀이신지...

### 단어의 뜻과 예문>

**ketam** : 게; ㉠kepiting

**menyuruh**[어근: suruh] : ㉠ 명령하다, 지시하다; ㉡memerintah/ Dia menyuruh adiknya menulis surat.(그는 그의 동생에게 편지를 쓰도록 명령했다)  
 ㉢ 파견하다, 보내다; ㉣mengutus

**anak** : ㉠ 신생아, 어린아이, 2세/ Ini bukan anaknya, melainkan cucunya.(이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라 그의 손자이다)  
 ㉡ 어린, 젊은  
 ㉢ 자손  
 ㉣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  
 anakkapal(선원), anakkomidi(코미디언)

㉤ 출생, 태생/Wanita itu anakkalimantan.(그녀는 깔리만판 태생이다)  
 ㉥ 어떤 물건의 일부분

**berjalan**[어근: jalan] : ㉠ 걷다, 걸어가다, 도보로 가다, 거닐다/ jangan berjalan di tengah jalan.(길 한가운데로 가지 마시오), terus berjalan(똑바로 가다), Saya melihat mereka berjalan di depan Hotel Indonesia.(저는 그들이 인도네시아호텔 앞을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계 따위가)움직이다, 돌다, 작동하다;  
 ㉢bergerak/ Tutuplah penutup radiato rsambil mesin berjalan.(기계가 움직일 때는 방열기를 닫아 두어라)  
 ㉣ 원활하게 되다, 평온하게 되다, 술술 나가다/ Pekerjaannya berjalan dengan lancar.(그 일은 원활하게 되었다)  
 ㉤ 작용하다, 듣다, 도움이 되다, 유효하다/ Itu hanya berjalan di negara-negara industri.(그것은 공업국가에서나 작용한다)

**betul** : ㉠ 정확한, 바른, 맞는 ; ㉡benar  
 ㉢ 진실된, 사실의; ㉣sungguh  
 ㉤ 정확히, 꼭  
 ㉥ 매우, 아주, 실로; ㉦amat,sangat  
 ㉧ 그렇지, 바로 그렇지  
 ㉨ 직접, 곧바로, 정면으로

2.

**Berjalan peliharakan kaki, berkata peliharakan lidah. 걸을 때는 발을 조심하고, 말 할 때는 혀를 조심하라**는 속담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혀 밑에 칼 들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말로 자기 혀를 자르는 불행은 없어야겠습니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그렇게, 경계의 말은 많은데 어찌자고 발과 혀는 늘 가깝게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pelihara** : 지키다, 돌보다; ㉠jaga, rawat

**kaki** : ① 발 ② 다리

kaki langit 지평선

kaki lima 인도, 보도; ㉠trotoar/ Pedagang Kaki

Lima(인도에서 장사하는 사람)

kaki seribu 지네

kaki tangan 조수, 공범, 직원/ penjahat dan kaki tangannya(주범과 공범)

**berkata** : 이야기하다, 말하다, 말로 나타내다

**lidah** : ① (體)혀

② 말씨, 말, 말투; ㉠cara berkata, perkataan/ Lidahnya manis.(그의 말씨는 곱다)

Lunak(lembut) lidahnya.(그의 발음은 유창하다)

③ 혀 모양으로 생긴 물체 또는 사물/ berat lidah(입이 무거운, 말을 잘하지 않는), cepat lidah(입 빠른, 상소리를 좋아하는), fasih lidah(말주변 좋은), mati lidah(맛을 모르는, 입이 쓴), lidah api 화염, 불꽃

3.

**Sebelum hujan sediakan payung. 비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라.** 이 속담은 증권가에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다. 명장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야겠지요. 어디 증권가나 전쟁터만의 일일 것입니다. 매사 유비무환입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sebelum** : 이전에, 하기 전에 /sebelum tutup pintu(문 닫기 전에)

sebelum pergi, makanlah dulu. (떠나기 전에 우선 먹어라)

sebelum dan sesudahnya(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sebelum melahirkan 출생 전

sebelum natal 크리스마스 전

sebelum tengah hari 정오 전

sebelum waktu makan 점심(시간) 전

sebelum masehi 기원전

sebelum waktunya 때 이른, 때 아닌

**hujan** : ① 비, 강우, 우천

②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③ 많이 얻다(오다)

berhujan 비가 오는

berhujan-hujan 빗속을 걷다

**sedia** : ① 준비가 된; ㉠disiapkan /Ia sudah sedia untuk berangkat.(그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었다), Makanan sudah sedia. (음식은 이미 준비 되었다)

② 용의가 있는, 할 각오가 되어 있는; ㉠sudi, rela /Ia selalu sedia untuk menolong.(그는 항상 도울 각오가 되어 있다)

③ 재고가 있는; ㉠sudah ada

④ 이미 ~한; ㉠sudah, telah /Ibu sedia maklum juga, bukan?(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payung** : ① 우산, 양산; ㉠pelindung badan

② 낙하산; ㉠parasut

③ (머리 위의)보호대(막)

④ 보호자; ㉠pelindung





## 추억 속의 서점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그리워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다. 아파트를 산책하다 들어오는 길에 우편함에 책이 들어있는 소포가 와 있었다. 생각해 보니 인터넷 북 회원에 가입해 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을 구입하지 않자 운영자가 임의대로 책을 선정하여 보내온 것이다.

나는 책을 훑어보다가 이제 머지않아 ‘서점’이란 단어도 내 그리움의 목록에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서점에 가기 힘들다. 그런데 북 회원에 가입하면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책은 읽고 싶고 바쁘다 보니 책을 편하게 구입해 보자는 생각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려니 체질에 영 맞지 않았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온 나는 책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온라인 에서는 그런 책과의 교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점에 직접

가면 꽂혀있는 책 중에서 눈에 띄는 책을 골라 제목과 표지를 훑어보고, 갈피갈피 뒤져보기도 하고, 작가의 서문이나 발문도 읽으며, 내용의 경중을 가늠하여 책을 선택하는 나로서는 온라인서점이 오히려 불편했다. 그래서 몇 번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고선 그만 두어버렸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원하지도 않은 책을 배송 받은 것이다.

나는 독서광까진 아니더라도 책 읽기를 좋아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왔다 하면 모든 일을 체치고 서점부터 들러 책을 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빌려 보기도 하였다. 오래된 습관처럼 늘 책이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읽은 책의 내용은 대부분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책들은 아주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내 인생의 스승이 되곤 하였다. 그러한 내 인생의 책들 중심에는 내 어린 시절 추억 속의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나의 독서 편력이 시작된 곳, 불란서시집을 몰래 읽으며 가슴이 요동치는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시인이 되어 멋진 시를 쓰리라던 그 기억 속의 꿈의 텃밭……

서점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어릴 적 살



던 동네 입구에 자리한 서점, 그곳은 경이로움과 환상이 교차하는 작은 우주였다.

시집이나 소설은 물론이고 사전류에서 잡지,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헌 책까지 온갖 책들로 꽉 들어찬 시각의 공간, 나는 서점 앞 버드나무가 연 초록 잎을 내밀던 초등 5학년 봄날에, 새로 사귄 친구 집에서 그 서점의 책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학교를 파한 오후시간이면 서점을 지키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책 속에 흠뻑 빠져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오직 이야기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설렘, 눈으로 마음으로 활자와 문장을 더듬으며 경험하는 짜릿함으로 세상의 신비를 경험하였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책들은 그들의 오래된 내력을 속삭여주었다. 아주 다정하게…… 그러면 나는 기막힌 피리소리에 이끌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하멜른 마을의 아이처럼, 그 속살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서점을 하는 친구를 잘 사귄 덕으로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책 한 권 사지 않으면서도 그때의 내 수준이 허용되는 범위의 책들은 거의 다 읽었으니 나는 참으로 염치없는 문학소녀였다.

어쩌다 내가 그 추억 속의 서점을 떠올릴 때면 친구보다도, 숨죽이며 읽었던 손때 묻은 불란서시집보다도, 친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온다. 친구가 없을 때도 슬쩍 들어와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앞전구에 불이 켜질 때까지 가지 않던 딸의 친구! 내가 민망해 할까 노심초사 하 시며 한 번도 그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친구의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고맙다. 아! 내가 어른이 되어 큰 서점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꼬맹이가 책방을 들락거리며 소녀가 될 때까지 공짜로 책을 보더라도 절대 쫓아내지 않겠다고 어이없는 다짐을 하곤 했었다.

그 추억의 서점, 구석진 자리에서 발 저려가며 문학 책을 읽었던 그 시절, 아마 나도 모르게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혜를 얻었으리라. 경험하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곳, 예측할 수 없는 운명까지도 책을 통하여 경험하고 이해했으니, 그 시절 부모와의 소통 부재로 심한 좌절감을 겪었던 조숙했던 사춘기, 삶의 허무가 죽음이라는 강렬한 유혹으로부터, 인생은 아름다우며 살아볼 가치가 있음을 책은 일깨워 주었다.

그때의 불란서 시인들의 시집 속에서 마리 로랑생의 '잊혀진 여자' 를 외우며 나는 누구에겐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철없는 다짐을 하게 된 것도 다 책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돌이켜 보면 욕심이 많아 다독하려는 허영에 사로잡혀 올바른 책 읽기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 당시 읽었던 책들의 깊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더 값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시절, 추억 속의 서점 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책들이 내게 펼쳐 보여준 다양한 세계가 있어 나의 십대는 외롭지 않았고 풍요로웠다.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 그곳을 찾았다. 그 시절의 서점은 흔적도 없어졌다. 서점 앞 오래 된 버드나무도 베어지고 단층 슬리브집은 세월의 변화 속에 고층 빌딩으로 도심 한가운데 묻혀버렸다. 서점 안을 들어설 때면 혹 풍기던 깊은 나무숲 속 같은 정겨운 종이내음도, 나의 손때가 묻었을 그때의 책들도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다.

그래도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내 마음속 추억의 서점은 늘 그 자리에 남아있다.



##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

박진원 / 아름다운병원 원장

얼마 전 울산의대 홍수중 선생님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의 문제에 대한 언급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지구환경에 전례가 없는 큰 기후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문제 중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경제발전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이로 인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와 산화질소, 그리고 메탄은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약 0.6℃ 온도상승이 있었으며,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99년에 가장 강력한 억제방법을 동원할 경우 1.8℃,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4.0℃ 정도 온도상승과 9-88 cm의 해수면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대기 내 체류시간은 100년 이상이 되므로 우리 세대의 행동결과가 다음 세대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연간 강우량 증가, 일부 지역의 사막화, 지역에 따른 혹서와 한파, 가뭄, 뇌우 등 극한 기상변화 등의 기후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는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최근의 빠른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등 인위적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에너지를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방출되는 긴 파장의 적외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

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육불화황(SF<sub>6</sub>) 등이 있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방출 증가는 지난 수십 년간 화석원료의 사용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메탄은 온실효과에 2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축산업과 함께 가스연소, 화재 등이 주된 발생원으로 작용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증가하거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변화는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이는 곧 건강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적인 날씨변화와 자연재해, 즉 가뭄, 혹서, 한파, 홍수 등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안전한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주거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전염병의 증가가 우려되는데,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이 곤충을 통해 매개되는 전염병이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위도나 고도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경제발전 수준, 보건체계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대기 꽃가루 농도

와 대기 오염의 특성과 분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유병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에서도 증상의 악화와 중증도, 조절과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온상승과 같은 기후의 지역적인 변화는 세계 여러 곳에서 물리적 및 생물학적 체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서, 강과 호수의 얼음이 일찍 녹고 식물과 동물이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며, 북대서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고 그린랜드와 서남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 궁극적으로 지구에 방대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 열 응력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혹서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1976년에 발생하였던 혹서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향후 2050년까지 5~6년마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효과는 도심의 기온이 교외지역이나 시골지역의 기온보다 더 높은 것으로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열을 보존하는 표면의 증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1995년 Chicago 에서 1주간의 혹서기 동안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혹서기에 과도하게 사망률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질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질병보유자와 영유아나 노인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 [ 홍수와 가뭄 ]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범람원이나 해안가, 열악한 공중보건 사회기반시설 등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직접

적인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영양실조가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설사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해 호흡기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과도한 곰팡이의 증식으로 호흡기계 증상이 더 유발하게 됩니다. 덧붙여 가정환경의 훼손, 경제적 상실 등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도 증가되고 특히 소아에서는 행동장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뭄은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물의 공동사용으로 공중위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뭄 동안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체 감염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 [ 엘니뇨와 건강 ]

엘니뇨(El Nino)현상은 페루와 에콰도르 해안가에서 크리스마스쯤 온수가 발생한 것에 유래하며, 온수는 매 2~7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이례적으로 발생하여 12~18개월간 지속되는데, 라니냐(La Nina)라 불리는 냉기가 뒤따라 발생합니다. 엘니뇨현상은 라틴아메리카 서부 해안가에 심한 강우와 홍수를 유발하며 적도부위에서 변화된 공기대류가 날씨 패턴을 변화시켜 세계 다른 지역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반면 미국 남서쪽, 아르헨티나, 케냐에서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엘니뇨현상은 건조지역의 강우와 습한 지역의 가뭄을 유발하며, 라틴아메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뎅기열, 한탄 바이러스 감염, 콜레라, Murry Vally 뇌염 같은 다양한 질환 발생도 엘니뇨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기오염 ]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오염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



다. 대기오염원은 크게 산업시설, 농축산업, 자동차, 생활시설이며 주된 오염물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과 같은 가스형태의 물질과 미세먼지와 같은 분진으로 분류됩니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대기과 일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호흡기계에 나타나며 또한 혈액순환으로 유입되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영향은 아직 면역체계가 확립이 되어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외부영향을 더 받는 어린 아동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임신 시에 노출된 대기오염의 영향은 태내성장 지연, 저출생체중, 조기분만을 유발하게 합니다.

대기오염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내 염증 유발, 산화스트레스 유도, 세포 내 중요 단백질 및 단백질효소를 변형, 자율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심박 혹은 기도과민반응의 변화, 면역계에서 보조자(adjuvant)적 효과, 전신순환으로 유입된 미세먼지에 의한 혈액응고, 그리고 정상 방어기전을 억제합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통의 영향은 특히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더 큽니다. 대기오염은 기도염증 및 기도과민반응을 증가시키고 흡입항원에 대한 기도반응을 증대시켜 천식증상을 악화시키고 천식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감염의 증가와 연관되며, 이산화질소는 고농도에서 호흡기계를 자극하고 기도폐쇄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사망률 증가는 전신순환으로 유입된 오염물에 의한 호흡기 및 전신의 염증반응, 심장자율기능 이상에 의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대기오염물들이 원인으로

로 밝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세먼지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및 급사의 중요 위험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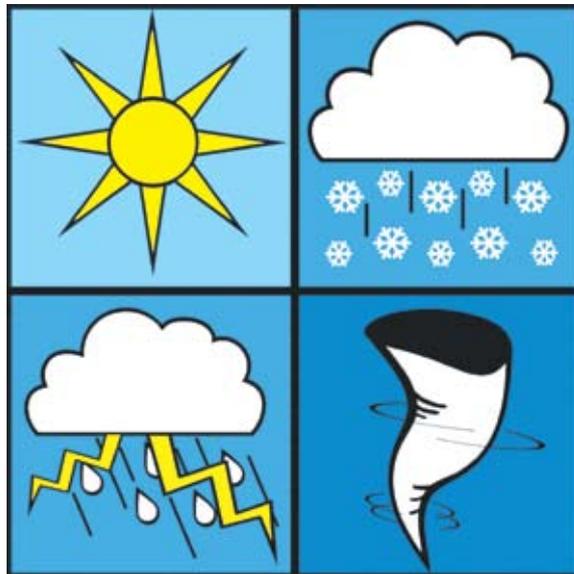
대기오염물은 기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기오염물의 영향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정된 농도의 오존과 미세먼지라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대기온도가 올라가면 그 위해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일별 최고기온은 오존농도와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즉,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자체에 의한 일사병 등 고온 관련 질환 및 사망이 늘어나는 영향 외에 오존의 농도를 높여서 오존에 의한 건강영향을 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 [ 알레르겐 ]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기온은 나무의 개화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초본 꽃가루 시기를 더 빨리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 자작나무 꽃가루 농도와 항원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며, 돼지풀 항원의 방출을 더 증가시킵니다. 2002년 보고에 의하면 개화시기는 약 4.5일 더 빨라졌습니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작나무의 꽃가루 시기가 약 1개월 빨라지고 그 농도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나무 및 초본의 꽃가루 시기가 증가하고 노출이 증가되어 알레르기질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상의 강도와 기간 증가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전염성질환 ]

온도, 습도, 강우의 변화 및 해수면 상승은 감염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기, 진드기, 벼룩은 미세한 온도, 습도 변화에 예민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개체 전염성질환은 인구나 동물의 이동, 공중보건 기반시설 붕괴, 토지사용 변화, 약물 내성 발생과 같은 많은 다른 인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감염성질환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세계인구 40%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살고 있으며, 매년 100-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소아입니다. 최근 말라리아의 발생과 관련한 예상자료에서, 2080년에는 말라리아 위험이 있는 지역 인구 수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한 모델링 연구에서 210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노출 위험이 16~28%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중앙아시아와 구소련의 남부지역과 같은 공중보건 기반시설이 붕괴된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론적으로 말라리아가 없어졌으나 매개체는 아직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 수인성질환 ]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아프리카 남부, 서부와 중동지역에 있는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물 부족과 관련된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물이 식수, 목욕, 관개 등 동일한 원천으로 사용됨에 따라 유발되는 물 부족이 신선한 물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수인성질환이 직접적으로 증가한다고 연관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름 건조기에 이은 겨울 홍수가 발생한 경우에 수인성질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상승은 콜레라 발생과 연관된 조류증식을

조장하며, 1980-2001년 사이에 콜레라 발생은 엘니뇨현상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 [ 영양실조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식량농업기구(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약 790만 명의 인구가 영양실조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고위도와 중위도에서 곡식 수확량이 증가하지만 저위도에서는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가뭄 증가로 식량생산이 감소하여 영양실조를 조장합니다.

### [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방안 ]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태양열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연료 개발, 수림 조성, 육식 감소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 감소, 새로운 식물을 포함한 식이원료 개발, 해조류 양식을 통한 이산화탄소 억제, 태양열 방어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토의정서와 같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온실가스배출 경감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인류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 외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들을 통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감염성질환, 영양실조, 심장-호흡기질환, 매개체 감염질환, 그리고 수인성질환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지구온난화가 인류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질환 분포와 유의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과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을 알며 예방하여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아웃소싱(Outsourcing)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분야의 최대 이슈는 아웃소싱이며, 아웃소싱 관련 문제는 2014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아웃소싱 철폐요구 대모가 점점 잦아지고 과격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아웃소싱의 문제점은 아웃소싱 인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의 직원에 비해서 법정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사 혹은 식대 및 교통비, 년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및 Job Security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인력을 회사의 주 생산공정(Core Business)에 투입을 금하는 노동법과 다르게 자신들이 주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있으며, 아웃소싱 인력을 주 생산공정에 투입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노동국에 고발해도 노동법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이 노조를 통해 단체행동으로 회사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있다. 지난 7월 12일 Bekasi 지역에서 10,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으로 아웃소싱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뿐만 아니라, 노동법과 다르게 아웃소싱 인력을 회사의 주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몇 개 회사에 난입하여, 현재의 아웃소싱 인력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부는 무기한부 고용계약 직원(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일부는 기한부 고용계약 직원(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합의서에 반강제로 서명을 받은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의 규정대로 무기한부 고용계약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경우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산을 맞출 수 없어 회사 존립자체가 불가능지며,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들의 논리와, 아웃소싱 인력을 쓰면 불량품이 적게 나오는데 정규직 직원을 쓰면 불

량품이 많이 나오고, 아웃소싱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며, 정규직 직원의 노무관리가 힘들다는 기업인의 설명은 아웃소싱 인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있으나, 아웃소싱 근로자의 실제 수령하는 임금액과 다른 처우, 특히 아웃소싱 근로자의 나이가 이십대 후반이 되면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이 이십대 후반에 실업자가 되버린다는 설명은 아웃소싱 제도의 불법 이용의 문제점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웃소싱이 어떠한 제도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설명한다.

### 1. 아웃소싱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규

- 1.1. 인도네시아 민법 제1604조 · 제1616조
- 1.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근로기준법) 제3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1.3. 인력공급업사업자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101/MEN/VI/2004 호 + 2004년 이전에는 인력공급업체가 별로 없었으나 상기 인력공급업사업자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제 KEP.101/MEN/VI/2004호 발효 이후 인력공급업체가 많이 생겼다.

### 2. 아웃소싱의 종류

- 2.1. 작업도급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 2.2. 인력공급계약  
(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

+상기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101/MEN/VI/ 2004 호는 인력공급업체 및 인력공급 계약에 관한 규정이다.

### 3. 아웃소싱법의 원칙

3.1. 아웃소싱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3.2. 아웃소싱 계약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3.2.1. 아웃소싱 인력 투입은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의 주 생산공정 작업(Core Business)이 아닌 보조 기능의 작업으로 한한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 혹은 부품제조회사, 봉제회사, 신발 혹은 부품제조회사 등의 생산공정 작업에 아웃소싱 인력 사용은 금하며, 회사의 보조 기능인 청소(Cleaning Service), 근로자 음식공급(Catering), 경비(Security),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광업 및 석유가스 생산 분야의 용역 등에 만 아웃소싱 인력 사용을 허용하며, 아웃소싱 인력 사용사의 직접 혹은 간접 명령에 의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의 직원과 최소한 동일한 처우 혹은 법정 처우를 해줘야 한다.

3.2.2. 아웃소싱회사의 법적신분은 반드시 법인(Legal Entity)이어야 한다.

3.2.3. 아웃소싱 계약은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와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회사 간에 체결하며,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은 아웃소싱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 근로조건, 휴가, 상벌, 산재보험 및 노사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 있지 아니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회사에 있다.

3.2.4. 아웃소싱회사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 혹은 시한성 작업인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아웃소싱사회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이 다음의 한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4.1. 아웃소싱 근로자가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의 생산공정에 직접 관련되는 작업 혹은 주작업(Core Business)에 투입된 경우 +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아웃소싱의 핵심 사항이다.

4.2. 아웃소싱회사가 법인자격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법인자격을 상실한 경우.

4.3. 아웃소싱회사가 인력공급 사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4.4. 아웃소싱회사와 근로자 간에 서면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

### 5. 아웃소싱의 현황

5.1. 거의 전 산업분야에 아웃소싱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계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Bekasi군의 경우, 2012년 7월 12일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날 현재, 노동국 관계관의 설명에 의하면,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웃소싱과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이며, 이 중에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으로 아웃소싱 혹은 기한부 고용계약을 금하는 작업 혹은 업종에 불법으로 고용되어 있다” 고 했다.

5.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인력을 생산작업에 불법으로 투입하고 있는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웃소싱 법규를 위반하고 아웃소싱 인력을 생산공정에 투입한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국은 생산공정에 투입된 근로자의 고발을 접수하면 조사 후 아웃소싱 인력을 생산공정에 투입한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시정명령이 법적인 강제 구속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5.3. 생산공정에 투입된 아웃소싱 근로자가 자신이 생산공정에 투입됐으니 자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인력사용회사를 상대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지않은 변호사비, 소송비, 노동법원, 대법원, 재심청구 등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확정판결로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문의 내용이, 종전에는 아웃소싱 회사와 고용관계였으나 지금은 자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외에는 실질적인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소송으로 판단되어, 경제적 능력이 약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노조로 뭉쳐서 아웃소싱 문제를 단체행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6. 아웃소싱이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미치는 영향

무기한부 고용계약 정규직 직원을 쓰는 것보다 인력비 부담이 적고, 인력관리가 용이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아웃소싱 인력을 쓰고 있는 회사에게는 유익이 많다.

## 7. 아웃소싱이 아웃소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년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직원에 비해 불리하다.

## 8. 아웃소싱회사(Outsourcer)

8.1. 아웃소싱회사의 사업허가서는 관할 시/군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며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사업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8.2. 아웃소싱회사와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간에 체결하는 아웃소싱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8.2.1.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명시해야 한다.

8.2.2. 근로자와 아웃소싱회사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임금, 복지, 근로조건 및 노사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웃소싱회사에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8.2.3.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아웃소싱회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새 아웃소싱회사는

구 아웃소싱회사의 근로자를 인수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8.3. 아웃소싱회사는 근로자와 체결할 고용계약서 Draft을 첨부하여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할 회사와 체결한 아웃소싱 계약서를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위치한 관할 시/군 노동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작업지가 복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주 노동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작업지가 복수의 주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노동이주부의 산업관계지도청에 등록해야 한다

8.4. 아웃소싱사가 등록을 신청한 아웃소싱 계약서의 내용이 상술한 '8.2.항' 에서 열거한 내용과 일치하면 등록신청을 접수한 노동관서는 아웃소싱회사에게 아웃소싱계약서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술한 '8.2.항' 에서 열거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는 아웃소싱계약서 등록증서에 상이한 사실을 기록하여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8.5. 아웃소싱사가 아웃소싱에 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에게 사업허가서를 발급한 시/군 노동관서는 아웃소싱 계약서 등록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의 요청으로 해당 아웃소싱사의 사업허가서를 취소해야 한다. 아웃소싱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는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배상 책임은 아웃소싱회사에게 있다.

## 9. 노동법의 아웃소싱 조항에 대한 위험 판결 여부

근로자측이 지난 2003년도와 2011년도에 노동법의 아웃소싱에 관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소청을 냈으나 합헌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도 판결이 노동법의 아웃소싱에 관한 조항의 한 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에서 아웃소싱을 규정한 제35조, 제64조, 제65조 및 제 66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웃소싱은 건재해 있다. 위헌소청의 기준으로 한 번 제시한 헌법의 조항은 다시 위헌소청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때문에 노동법의 아웃소싱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웃소싱에 관한 법규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는 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아웃소싱 법규 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처벌 조항이 언젠가는 추가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 10. 아웃소싱 문제에 대한 대책

10.1. 현재 아웃소싱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아웃소싱 인력을 쓸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현지 노동법은 회사의 주 생산공정(Core Business)에 아웃소싱 인력투입을 금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 생산공정과 관련이 없는 청소(Cleaning Service), 음식공급(Catering, Cook, Maid 등), 경비(Security),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등 과 광업 및 석유가스 생산 분야의 용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문제의 핵은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노동법에서 금하고 있는 자사의 주 생산공정 혹은 생산작업에 아웃소싱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2. 아웃소싱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년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면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사용을 기피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아웃소싱 인력을 회사의 주 생산공정이나

작업에 투입은 근본적으로 노동법에 위배됨으로 단체행동을 통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해당되는 회사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10.3. 법의 특징은 강제성이며 법을 어겼을 때는 법을 어긴 자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요구하며, 법은 실행을 요구한다. 법대로 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큰 손해가 오는 경우에는 차선을 생각하고, 법대로 해도 회사에게 큰 손해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준법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에 대사관 아웃소싱 대책회의 중 휴식시간에 차를 나누면서 신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인에게 “조금 덜 벌고 법에서 금하고 있는 아웃소싱 인력으로 쓰지 마시고 법대로 정규직으로 쓰시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전자제품 제조업 기업인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꿀떡은 병어리 모습이 된 것을 옆에서 목격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사항을 어느 정도는 준수하면서 관계를 관리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ore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회사들은 노조대표와 대화 자체도 힘들며 근로자의 불법 단체행동에도 정부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아웃소싱을 노동법의 기준으로 시행이 가능한 회사는 노동법대로 시행을 권유하며, 노동법대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회사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적인 시행을 권유한다. 인도네시아의 무샤와라(Musyawah) 문화로 생각하면, 아웃소싱 몇 %, 기한부 고용계약 몇 %, 무기한부 고용계약 몇 %, 일용직 몇 % 식 접근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10.4. 회사 자체의 노무관리 능력 보수가 필수이다. 노동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근로자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현지인 직원이 필요하다.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법학전공자이다. 법학전공자를 회사의 노무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평소에 노조 및 근로자와 관계를 정성들여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미운 녀석에게 떡 한 개 더 준다는 우리 속담대로 사내 노조의 간부 및 근로자의 리더그룹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방법일 것이다.



## 선택선 재외선거관이 당부하는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하면 여권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년  
은 2009년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위반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내 정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를 방지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 시 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여 금년 초에 공직선거법에 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제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

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권관련 불이익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상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선거운동(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가볍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경우 자칫 불법체류자로 되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은 가능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보다도 사실상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하여 재외국민의 권익도 한층 신장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한편, 선거가 정쟁의 장이 아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 밀입북이 통일운동인가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선 후기 순조 때 방랑시인 김삿갓을 모티브로 했던 라디오 단막극이 ‘김삿갓 북한 방랑기’란 프로그램이다. 1964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무려 37년간 1만1500회 방송된 역대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말 북한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뒤 100일 넘게 친북 행보를 펼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을 보노라면 김삿갓 방랑기가 연상된다.

김삿갓은 방방곡곡을 떠돌며 민초들의 애환을 가슴 아파하는 풍자시를 남겼다. ‘김삿갓 북한 방랑기’는 이런 모티브를 살려 김삿갓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한탄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노수희는 북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반대로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찬양했다.

그는 김일성의 평양 만경대 생가와 주체사상탑 등 체제 선진물을 대부분 참관했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 영정에 화환도 바쳤다. 방북 체류 중 그가 내뱉은 말과 행동은 친북·중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김일성 생가에서는 방명록에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사과하러 왔다”는 글을 남겼다. 평양 개선문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또 북한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대통령과 미군의 인형을 때리고 되돌아오는 놀이를 함께 보며 손뼉을 치고 즐거워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노씨가 가는 곳마다 북한당국의 기록영화 촬영팀이 따라다닌 점이다. 북한이 노수희의 찬양을 이른바 ‘우월성 선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그가 4월 총선 야권연대 공동선언에 참석했던 인물이란 점은 놀랍다. 노수희와 유사한 대북 인식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 국회와 정치권에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군의 작전계획, 전력증강 계획 등 각종 기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십분 활용해 우리만의 일방적인 군비 감축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와 같은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이념 논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국민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국가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야지 북한을 대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1989년 문익환 목사를 필두로 2005년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맞춰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돌아온 통일연대 황선 대변인, 재작년 한상렬 진보연대 고문에 이르기까지 몇몇 인물들이 ‘통일운동’을 내세워 밀입북을 감행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마치 대한민국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게 ‘통일운동’인 양 여기는 듯했다.

노수희도 이들처럼 판문점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씨의 귀환계획을 전하면서 “노 부의장의 방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응당한 예의”라는 주장까지 했다. 서울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시각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범민련 공동보도문을 내놓은 걸 보면 노수희 귀환을 위한 각본을 치밀하게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아 체제 선전에 이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관계당국은 노씨가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고무·찬양 행위를 저지른 만큼 귀환하는 대로 긴급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씨의 법질서 문란행위와 김정은 체제 찬양 행보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

서로 돕는 한인사회 · 서로 믿는 한인사회 · 발전 하는 한인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2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1	한인회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2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2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창근	KMK GROUP	2012	9,980
5	한인회 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2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CAMTEX	2012	5,000
7	한인회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5,000
8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ROYAL SUMATRA	2012	5,000
9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한은행	2012	5,000
10	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희정	PT. SAMICK INDONESIA	2012	3,000
11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두련	PT. MIWON	2012	3,000
12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송정	UNICON INDO MESIN	2012	2,995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3,000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병용	PT. PATRA SK	2012	3,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형석	PT. NANTOY RESOURCES	11/12	6,000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세호	DUMI GLOBAL	2012	3,000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완주	PAN BROTHERS TBK	2012	3,00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3,000
19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주한	ROYAL SUMATRA	11/12	2,000
20	자문 위원	김영만	KIPCO CO. LTD	2012	1,000
21	자문 위원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1,000
22	자문 위원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2,000
23	자문 위원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24	자문 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2	1,000
25	자문 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2	1,000
26	이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2	1,000
27	이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2	1,000
28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1,000
29	이사	김광현	ASOKA	2012	1,000
30	이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2	1,000
31	이사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2012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32	이사	김상태	SMS GROUP	2012	1,000
33	이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2	1,000
34	이사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2	1,000
35	이사	김원관	PT. GF INDONESIA	2012	980
36	이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1,000
37	이사	남상달	PT. PARKLAND INDONESIA	2012	1,000
38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2	1,000
39	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2	1,000
40	이사	박영수	PT. BENUA ASIA VISION	10/11/12	3,000
41	이사	서영을	PT. PRATAMA ABADI	2012	1,000
42	이사	석웅치	PT. DAYUP INDO	2012	1,000
43	이사	송판원	PT. KORYEPOLIMER	2012	1,000
44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2	1,000
45	이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2	1,000
46	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1,000
47	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1,000
48	이사	이상일	PT. U I B	2012	1,000
49	이사	이석태	PT. U F U	2012	1,000
50	이사	이승민	Y S M & PARTNERS	2012	1,000
51	이사	이종역	K A L	2012	1,000
52	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2	1,000
53	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1,000
54	이사	정주성	PT. DEASUNG HI-TECH	2012	1,000
55	이사	조호신	SONERGY	2012	1,000
56	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1,000
57	이사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12	1,000
58	이사	현정규	MEKAR SAMMI JAYA	2012	1,000
59	이사	홍기호	PT. AURORA INT'L CO.	2012	1,000
60	이사	홍종서	PT. DONGEN CHEMICAL	2012	1,000
<b>TOTAL</b>					<b>150,955</b>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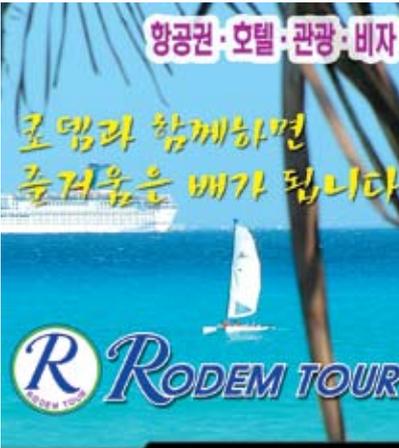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을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장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카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더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평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Hits(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팰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안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팰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567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437
쉽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 본 점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0816-873-176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HP.0816-1390-333  
Tel. 021-7278-8327 | HP.0888-110-2022 | E-mail. 3spearl@hanmail.net

# KORINDO Plants the Green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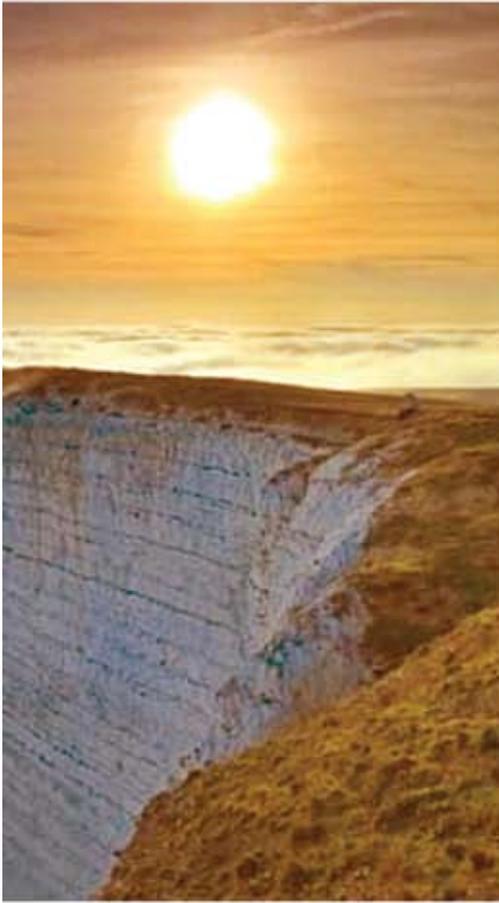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 **PT. DOOSAN CIPTA BUSANA JAYA**



Kawasan Berikat Nusantara Jl.Madura V Blok D-18A  
Jl. Raya Cakung Cilincing Jakarta 14140, Indonesia  
Telp. 62 21 4410363 Fax. 62 21 4407753